

黃元御의 生涯와 醫學思想

崔桓壽·尹暢烈*

I. 緒 論

醫學의 發展은 人類가 地球上에 出顯하면서부터 始作되었다 할 수 있는데 東洋醫學은 春秋戰國以前的 原始時代에는 人類의 生産力이 매우 낮았고 生産活動의 範圍도 狹小함으로 하여 醫學의 發展이 큰 制約을 받았으며 春秋時代에 이르러서는 比較的 豊富한 臨床知識을 쌓게 되었고 同時에 醫學理論도 싹트기 始作하였는데¹⁾ 《黃帝內經》이 著作되어 以前的 醫學知識을 收集하여 東洋醫學의 理論體系를 確立하게 되었으므로 《黃帝內經》은 東洋醫學의 經典으로 尊崇되었다.

《黃帝內經》이 이루어진 後에 《黃帝內經》의 難解한 點을 解釋한 理論書로서의 《難經》과 《黃帝內經》의 理論에 根據하여 臨床書로서 《傷寒雜病論》 등이 著述되었으니 이러한 《黃帝內經》, 《難經》, 《傷寒雜病論》 등을 後世에서 經典으로 하여 이를 演繹的인 方法으로 議論함으로서 東洋醫學理論의 發展과 整理의 循環을 이루게 되었다.

《黃帝內經》에 對한 研究를 살펴보면 《素問》의 註解는 梁代의 全元起가 最初이며 隋代의 楊上善이 《素問》과 《靈樞》의 分類해서 다시 編纂하여 《黃帝內經太素》라 하였다. 唐代에 이르러 王冰이 《素問》에 全般的인 註釋을 하여 編次를 새롭게 하고 五運六氣七篇을 補充하였다. 宋代에 林億 등이 ‘新校正’을 하였으며 또한 劉溫舒의 《素問入式運氣論奧》, 駱龍基의 《內經拾遺方論》이 著述되었고 金代에는 劉完素의 《素問玄機原病式》, 《素問病機氣宜保命集》과 元代 潛伯仁의 《黃帝素問抄》, 羅天益의 《內經類編》 등의 著述이 있었다. 明代에서는 分類하거나 一部分만을 拔萃하여 註解하는 등의 여러 形式以外에도 또한

*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醫學史學教室

1) 洪元植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4. pp.13-32.

馬蒔의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가 있고 後世에 가장 影響을 끼친 張介賓의 《類經》도 이 때에 著述되었다. 淸初에는 張志聰의 《素問集注》 등이 나왔으며 以後에도 많은 註解書가 여러 形式을 通해서 著述되었다.²⁾³⁾⁴⁾

《靈樞》는 《素問》에 比하여 平易하게 編纂되었다 하여 註釋家들 사이에 別다른 爭點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現存하는 《靈樞》는 宋代의 史崧이 改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對하여 明代 馬蒔의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와 《類經》 등과 또한 淸代 張志聰의 《靈樞集注》 등의 註釋書가 있다⁵⁾.

《難經》은 秦漢時代에 《內經》의 難解한 點을 問難의 形式으로 解釋한 理論書로서 예로부터 秦越人(扁鵲)著로 되어 있는데 主書는 모두 81個의 問題를 討論하였으므로 《八十一難》이라 稱한다⁶⁾. 《難經》에 對한 歷代研究는 대체로 《難經》의 原文을 註解·註釋하여 諸家의 研究를 匯選·補充하고 自己見解를 提出하는 方法과 《難經》原文中の 錯簡과 缺漏를 찾고 編次를 再整理하여 《難經》原貌를 恢復하기 위한 校勘을 試圖하는 方法으로 進行되어 왔다. 이中에서 三國時代 吳의 呂廣의 《難經集註》, 元代의 滑伯仁은 《難經本義》, 淸代 徐靈胎는 《難經經釋》를 著述하였으며, 近代에는 張山雷의 《難經匯注箋正》가 있다⁷⁾.

《傷寒論》은 東漢代에 張機가 各種病變을 六經과 脈으로 歸納하여 著述하였다고 보는데 西晉時代에 이르러서 王叔和가 새로 收集하여 整理를 加하여 現存하는 形式으로 編纂되었다. 宋代에 이르러 林億 等으로부터 《傷寒論》이 校正·刊行된 後 《傷寒論》에 對한 研究는 主로 註解, 整理 및 補充의 세 方面으로 나타났으며⁸⁾ 金·元代에는 唐·宋때보다 傷寒에 關한 研究는 깊지 못했으나 金代의 劉河間의 《傷寒直格論》以後로 傷寒學의 研究範圍는 넓어지게 되었다⁹⁾. 明代에 와서는 尊經衛道의 復古主義思想으로 張仲景을 醫聖으로 받들어 《傷寒論》을 研究하였고 熱性病에 對한 認識을 이제까지 傷寒 或은 不正之氣라고 하였지만 明末에 이르러서는 이를 두고 傷寒派와 溫病派의 論爭이 始作되게 되었으며¹⁰⁾ 淸代에 들어서는 多樣한 方面으로 論爭이 되었고 또 溫病學派의 發展으로 傷寒과 溫病에 對한 比較分析이 있게 되었다.

2) 洪元植, 上揭書, pp.47-51.

3) 王琦 等編著, 素問今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1. p.1.

4) 梁運通主編, 黃帝內經類析, 呼和浩特市,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p.2.

5) 洪元植, 上揭書, pp.47-51.

6) 洪元植, 上揭書, p.95.

7)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上海, 人民衛生出版社, 1978. pp.3-4.

8) 洪元植, 上揭書, p.116.

9) 中國中醫學院, 三十年論文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6. pp.95-97.

10) 洪元植, 上揭書, pp.237-246.

清代에 이르러서 實用의 學問을 重視하게 되었으니 臨床側面이 대단히 크게 發展한 時期로서 溫病學派의 隆盛, 臨床의 專門的인 書籍刊行, 中西醫匯通思想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¹¹⁾ 이러한 發展을 하게된 根幹에는 清初의 考證學의 影響이 있었다. 이러한 清代에 黃元御는 黃帝, 岐伯, 扁鵲, 張仲景을 ‘四聖’이라 하여 尊崇하여 ‘四聖’의 著作에 註解를 하고 ‘四聖’을 精密하게 研究하여 自身의 見解를 나타내었다.

이에 著者는 清代 醫家中의 하나인 黃元御의 生涯와 古醫經에서부터 始作한 그의 研究方法으로 類推된 그의 醫學思想에 對하여 學界에서 評價가 있어야 한다고 思料되어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黃元御의 生涯와 著書

1) 黃元御의 生涯

이름은 玉路요, 字는 元御, 다른 字는 坤載요, 號는 研農, 別號는 玉楸子이다. 別號가 玉楸子인 理由는 乾隆帝를 治療하여 주어 이로 해서 乾隆帝로부터 巴蜀알(奕), 玉(玉子)과 가래나무(楸木)로 만든 바둑판을 寄贈받아서이다¹²⁾. 清代 山東省 昌邑縣 黃家辛郭人으로 明朝의 光祿大夫少保兼戶部尙書인 黃福 忠宣公의 16代 高孫이다. 清代 康熙44年 乙酉年(西紀 1705年) 9월에 出生하여 乾隆23年 戊寅年(西紀 1758年) 9월에 죽었으니 享年 53歲이다¹³⁾. 黃의 祖父인 黃運貞은 副榜貢生이었고 아버지인 黃鐘은 邑庠生으로 詩詞文章을 工夫하였으며 사촌형인 黃德靜은 先秦諸子의 學問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또한 痘疹을 잘 治療하였는데 黃元御는 아버지와 사촌형에게 많은 影響을 받았다¹⁴⁾.

黃는 어려서 다른 이들보다 聰明하여 15歲엔 곧 諸生(秀才)이 되어서 世上에서 國家에 貢獻할 만한 人才로 推仰받았다. 《素問懸解自序》에 “玉楸子盛壯之年에 誤服庸工毒藥하여 幸而不死하니라. 遂抱杜欽褚炤之痛하여 憤檢漢後醫書니라.”¹⁵⁾

11) 裘沛然主編, 中醫歷代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出版社, 1984. p.233.

12) 甄志亞主編, 中國醫學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385.

13) 黃元御撰, 黃元御醫書十一種(下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29.

14) 甄志亞主編, 中國醫學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385.

15) 黃元御撰, 上揭書(上卷), p.8.

라고 하였으니 30歲에 左側 눈이 紅澁하였는데 庸醫의 誤治를 받아 한쪽 눈이 애꾸가 되었다¹⁶⁾. 또한 그는 庸醫의 잘못 投藥하여 失明하게 된 것을 자세하게 記錄하였으니 《素靈微蘊·卷四·目病解》에 “玉楸子中外條固하여 夙無苛疾이라. 甲寅八月 時年三十에 左目紅澁하니라. 三日後白睛如血하며 周外腫起하고 漸裹黑珠니라. 口乾不飲하며 并無上熱煩渴之證인댄 延一醫診之하여 古冠嚴色에 口沫泉湧하며 以爲大腸之火라하니 用人黃黃連下之하나 不泄이라. 又以重劑下之하나 微泄하나 不愈라. 乃意外有風寒이라하여 用滾茶一盆하고 覆衣熏蒸하니 汗流至踵이나 不愈라. 有老嫗善鍼으로 輕刺白珠하니 出濁血數十滴如膠하여 紅腫消退하니 頗覺清朗이라. 前醫猶謂風火不盡이라하여 飲以風燥苦寒數十劑하나 漸有飛白拂上하니 如輕霧濛籠이라. 伊謂恐薄翳漸長이라하니 乃用所謂孫真人秘方에 名揭障丹으로 一派辛寒을 日服二次라. 又有熏法에 名沖翳散호대 藥品如前하고 煎湯熱覆하며 含筒吹熏하여 取汗如雨를 每日一作이라. 如此半月하니 薄翳漸長漸昏하고 蟹睛突生外眵하며 光流似電하니 脾陽大虧가 數年之內에 屢病中虛하여 至今未復이라.”¹⁷⁾고 하였고 失明을 回復시킬 수 없는 原因에 對하여서도 “脾陽大虧가 數年之內에 屢病中虛하여 至今未復”라고 하였다.

清代의 科擧試驗은 五官이 바르지 못하면 모두 버슬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는 곧 科擧試驗을 보는 것을 버리고 오로지 醫術만을 하게 되었다¹⁸⁾. 失明으로 困하여 發憤하여 醫學을 하며 말하기를 “不能爲良相濟世하면 亦當爲良醫治人이라.”고 하였다¹⁹⁾.

黃은 《素靈微蘊·序意》에서 “軒岐既往이나 ‘靈’‘素’猶傳하니라. 世歷三古요 人更四聖이나 當途而後엔 赤水迷津이니라.”²⁰⁾고 하고 《四聖心源自敍》에서 “醫有黃帝 岐伯 越人 仲景四聖之書니 爭光日月이라.”²¹⁾고 하여 《內經》, 《難經》, 《傷寒論》 등의 書籍을 대단히 貴重하게 여기고 醫學의 根源으로 보았고 《素問懸解自序》에 “上溯岐黃하여 伏讀‘靈’‘素’하니 識其梗概하고 乃悟醫源하니라”고 하였으니 精心하게 研究하였음을 알 수 있다. 黃은 ‘四聖’으로부터 以後에는 오직 孫思邈만이 古聖의 經旨를 잃지 않았다²²⁾ 하여 “仲景而後에 惟孫思邈真人不失古聖之源이라. 其餘著作이 如林하나 無一線微通者라”고 하였다²³⁾.

16) 李雲主編, 中醫人名辭典,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88. p.786.

17)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p.324-325.

18)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p.532-533.

19) 李雲主編, 上揭書, p.786.

20)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328.

21)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3.

22) 李經緯主編, 中國人物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8. p.561.

23) 李雲主編, 上揭書, p.786.

그는 또한 晉唐以後의 諸家學說을 두루 涉獵하였으며 各地로 돌아다니면서 醫를 行하였다. 일찌기 北都(지금의 山西省 太原縣), 淸江(지금의 江西에 屬함), 武林(지금의 浙江省 杭州) 等地에서 學問을 가르쳤다²⁴.

乾隆15年 庚午年(西紀 1750년)에 黃이 北京에 있을 때 마침 乾隆帝가 病患을 앓았는데 故鄉人이 黃을 薦舉하여 三劑로써 乾隆帝의 病을 治愈시키게 되어 御醫를 받게 되었다²⁵. 그 精湛한 醫術로 乾隆帝의 特別한 好感을 얻어 親히 “妙悟岐黃”이라는 四字匾額을 題受받아 太醫院 門앞에 걸어 놓아 表彰받았음을 나타냈다. 乾隆16年 辛未年(西紀 1751年) 2월에 乾隆帝의 南巡하는데 黃이 隨行하여 藥을 調製함에 모두 神效함이 있었다. 《四聖心源自序》에 “帝眷之隆에 何可恃也 있고 良時非多하니 勸之而已니라.”라 하였으니 黃이 御醫의 부름을 받아 비록 淸의 高宗에게 恩寵을 받았으나 皇帝의 恩惠의 豐盛함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繼續해서 著述作業을 하였음을 볼 수 있다²⁶.

黃은 相當히 自負心을 가졌으니 古今에 自己와 겨를 者가 없다고 생각했다. 《傷寒懸解自序》에 “玉楸子滌慮玄覽에 游思壙垠하고 空明研悟하니 自負古今無雙이라.”고 하였고 《素問懸解自序》에는 “乾隆甲戌에 客處北都하여 成書八部라. 授門人畢子武齡하여 服習年餘하니 直與扁倉並駕니라.”고 하고 또한 “無何稿脫書淸하여 事竣業就하니 遂作岐伯之高弟요 黃帝之功臣이니라.”고 하였으니 그의 自負心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러한 自負心을 가지고 《內經》 등의 經典을 往往 任意로 고치거나 文字를 增刪하였으며 古代醫家에 對하여 ‘四聖’과 孫思邈만을 믿었고 其他 다른 수 많은 醫家와 醫學著書는 相當히 不信하는 態度를 보였고 批判을 加하였다²⁷. 예를 들어 《素靈微蘊·卷二·醫方解》에서 “醫自岐伯立言하고 仲景立法하니 百世之師也라. 後此惟思邈眞人이 祖述仲景金匱之法하여 作<千金方>인댄 不失古聖之源이라. 其餘方書數百種이나 言則荒唐而訛謬하고 法則怪妄而差也니라. 上自東漢以來로 下自昭代以環에 著作如林이나 竟無一線微通者니라.”²⁸라고 하였다. 또 劉河間의 泄火의 論述과 朱丹溪의 補陰의 論說을 攻擊하며 말하기를 “究其源流하니 瀉火之論은 發於劉河間이오 補陰之說은 倡於朱丹溪니라. 二悍作俑하고 群凶助虐하니 莫此爲甚인저.”라고 하였고 “今之庸愚는 習用諸方이니 如四物 八珍 七寶 六味 歸脾로 補心滋腎營養之類니 紛紜錯出하여 不可勝數라.”라고 하여 後世에서

24) 李經緯主編, 上揭書, p.561.

25) 甄志亞主編, 上揭書, p.385.

26)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529.

27) 甄志亞主編, 上揭書, p.385.

28)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290.

四物湯, 八珍湯, 六味地黃元, 歸脾湯 등의 方劑을 應用하여 補心滋腎하는 醫師에 對하여 ‘庸愚’라고 批判하였다²⁹⁾. 그리고 “驚悸之證은 …… 嚴用和質味而造歸脾之方하여 以補心血하고 薛立齋又有丹彼梔子加味之法이라. 張景岳 趙養葵 高欽峯 呂用晦는 更增地黃芍藥之輩니라. 復有無名下士作天王補心丹하여 肆用一派陰涼이라. 羣兒醉夢不醒하여 成此千秋殺運이니 可恨極矣인저!”³⁰⁾라고 攻擊하여 諸醫家에 對해서도 批判을 加하였다. 또한 諸醫書에 對하여 “先生嫉近代諸醫家離經畔道하니 多逞私說하고 反復辨難하며 關其乖謬하니 緣是爲世詬病하여 故其書屏而不傳이니라.”고 하였다³¹⁾.

黃은 特히 그 맑고 높고 順從치 아니하는 性格으로 해서 自然的으로 높은 벼슬, 顯官, 助爵과 世家를 낮게 보고 오로지 著述하여 立論하고 後世에 알리고자 하는 것을 樂으로 삼는 人生觀을 形成하였으니 그의 言行이 반드시 權威의인 人士들에게 거슬렸을 것을 알 수 있고 또 後人의 偏僻된 것을 바로잡는 말은 역시 庸劣하고 俗된 것을 따르지 않았을 따름이다³²⁾. 《素靈微蘊·序意》에 “藏諸空山하여 以待後之達人하니라.”라고 하고 또 《四聖懸樞自序》에서 “吾將藏之深山하여 虛坐以待矣니라”라고 하였으니 그 當時에 그를 제대로 評價해 주는 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因하여 黃의 著書는 國家에서 編纂한 《四庫全書》에 다만 目錄만이 存在하게 되었고 또 그의 마음이 지나치고 名譽를 救하려는 마음이 대단히 急하였다고 評價되었다. 또한 《清史稿·卷52》에서는 “自命甚高 喜更改古書 以伸己說”이라고도 評하였다³³⁾.

그러나 그는 一生동안 재주가 넘치고 抱負가 高遠하고 至極히 勞力하여 떨쳐나아가 삼가 古訓을 救하였고 機氣를 研究함이 至極히 깊었으며 그의 醫學精神은 대단히 貴하여 後學이 師法으로 맡길만 하였으니 그에 對하여 同時代 人物인 申士秀는 《金匱懸解後序》에서 “都昌上士는 萊國鴻生에 史服經衣하여 探八索九丘之奧하고 仁巢義杖하여 發三辰五嶽之靈하니라. 本良相之心爲良醫하니 卽活人之手而活國하고 技已精於三折하니 病不患夫四難이니라.”고 하였으며 그의 著書에 對하여는 “說必解頤하고 趣旨炙舌하니 囊中之玉津이오 肘後之金科니 眞所謂發得燈於暗室이오 波寶筏於迷津者也니라.”고 하였다³⁴⁾.

黃은 古來의 醫書를 널리 보고 秘奧를 窮究히 하였고 醫理를 綜合하였으므로 더

29) 甄志亞主編, 上揭書, p.385.

30)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p.290-291.

31)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533.

32)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529.

33) 趙爾巽 等撰, 清史稿(46冊), 北京, 中華書局, 1991. p.13873.

34)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533.

욱 精密하게 하였으며 論治하는 데는 扶陽抑陰을 爲主로 하였고 用藥하는 데는 溫補에 치우쳤다³⁵⁾. 弟子로는 畢維新 등이 그의 學問을 繼承하였으며 後世에 張琦, 區陽兆 등이 역시 그의 學問에 影響을 받았다.

2) 黃元御의 著書

黃은 醫書 11卷, 《周易懸象》1部, 《道德經懸解》1部를 著述하였다. 醫書의 目錄과 卷數는 아래와 같다. 《傷寒懸解》14卷, 《金匱懸解》22卷은 乾隆13年 戊辰年(西紀 1748年)에 完成되었다. 《四聖心源》10卷, 《四聖懸樞》5卷, 《長沙藥解》4卷은 乾隆18年 癸酉年(西紀 1753年)에 完成되었다. 《傷寒說意》10卷, 《素靈微蘊》4卷, 《玉楸藥解》8卷은 乾隆19年 甲戌年(西紀 1754年)에 完成되었다. 《素問懸解》13卷은 乾隆20年 乙亥年(西紀 1755年)에 完成되었다. 《靈樞懸解》9卷, 《難經懸解》2卷은 乾隆21年 丙子年(西紀 1756年)에 完成되었다. 《玉楸子堂稿》卷數와 冊이 이루어진 年代는 未詳이나 世上에 刊行되지 않은 듯 하고 또한 《周易懸象》과 《道德經懸解》도 世上에 刊行되지 않았다³⁶⁾.

《素問懸解》는 乾隆20年 乙亥年(西紀 1755年)에 完成되었다. 黃은 《內經》에 對해서 《素問懸解自序》에서 “黃帝謫岐伯作《內經》하여 垂《素問》과 《靈樞》之篇하니 醫法淵源이 自此而始하니 所謂玄之又玄하여 衆妙之門者也니라.”³⁷⁾라고 하여 《內經》을 醫學의 淵源으로 보았다. 또한 “醫尊四聖인댄 自今日始로 仲景二注二成이나 岐黃扁鵲之書는 迄無解者하니 三聖之靈이 未無遺恨여!過此以往하고 來者가 誦法新書하면 心開目明이나 而不解先聖古義하니 又將恨無終窮也니라.”³⁸⁾라 하여 《素問懸解》를 著述하게 된 理由를 말하였으며 “秦漢而後에 韋絕簡亂하고 錯落舛互하여 譬之棼絲하니 不可理矣니라.”³⁹⁾라고 하고 역시 “至其紊亂錯訛하나 未能正也니라.”⁴⁰⁾라고 하여 《素問》이 錯簡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世上에 傳하는 《素問》에서 刺法篇, 本病篇, 刺志論은 이미 亡失되었다 하는데 黃은 診要經終論部分의 內容을 取하여 刺法論을 補充하고 玉機眞藏論部分의 內容을 取하여 本病篇을 補充하였으며 通評虛實論의 內容을 取하여 刺志論을 補充하여 81篇의 옛 모습을 回復시켰으며 아울러 各篇의 次例를 다시 새롭게 하여 養生, 藏象, 脈法, 經絡, 孔穴, 病論, 治論, 刺法, 雷公問, 運氣 등 10類로 하여 13卷

35) 李經緯主編, 上揭書, p.561.

36)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530.

37) 黃元御撰, 上揭書(上卷), p.8

38) 黃元御撰, 上揭書(上卷), p.8.

39) 黃元御撰, 上揭書(上卷), p.8.

40) 黃元御撰, 上揭書(上卷), p.8.

으로 만들었다. 黃은 各 文段의 經文에 對하여 하나하나 詮釋을 하였는데 特히 天人相應, 陰陽五行, 升降浮沈 等の 理論에 對하여 힘써 發揚하였다⁴¹⁾. 또한 南北政論에 對하여 言及하였으니 《素問懸解卷十二·至眞要人論》에 “南政北政은 經無明訓이나 舊注荒唐하니 以甲巳爲南政하고 其餘八干爲北政이라고하니라. 天地之氣는 南北平分인댄 何北政之多而南政之少也잇고. 此眞無稽之談矣라. 以理推之하면 一日之中에 天氣晝南而夜北하니 是一日之南北政也라. 一歲之中엔 天氣夏南而冬北하니 是一歲之南北政也라. 天氣十二年一周에 則三年在北하고 三年在東하며 三年在南하고 三年在西니라. 在北則南面而布北方之政하니 是謂北政으로 天氣自北而南升하니 尺主在泉而寸主司天이오 在南則北面而布南方之政하니 是謂南政으로 天氣自南而北降하니 故寸主在泉而尺主司天이니라. 六氣以少陰爲君인댄 尺主在泉이면 故少陰在泉則寸不應이오 寸主司天이면 故少陰司天則尺不應이오 寸主在泉이면 故少陰司泉則寸不應이오 尺主司天이면 故少陰在泉則尺不應이라. 此南政北政之義也라. 天氣在東이면 亦自東而西行하고 天氣在西면 亦自西而東行이니 不曰東西政者는 以純陰在九泉之下하야 其位爲北이오 純陽在九天之上하야 其位爲南이라. 故六氣司天則在南하고 六氣在泉則居北이라. 司天在泉은 可以言政이오 東西者는 南北之間氣로 非天地之正位니 不可以言政也니라. 則自卯而後에 天氣漸南하니 總以南政統之요 自酉而後에 天氣漸北하니 總以北政統之라.”⁴²⁾라고 하였으나 《四庫全書總目提要》에는 “其論은 爲前人所未及나 然運氣之說이 特約舉天道之人凡하니 不能執爲定譜하야 以施治療하니라. 則亦如太極無極之爭耳니라.”⁴³⁾라고 낮게 評價하였다. 그러나 《素問懸解》에 對하여 馮承熙는 《新刻素問懸解》에서 “觀其條理分明하고 篇第昭晰하니 其所移置가 則若符節之合也라. 義意周密하고 脈絡融貫하니 其所詮釋이 則若日星之炳也라.”⁴⁴⁾고 極讚하였다.

《靈樞懸解》는 乾隆21年 丙子年(西紀 1756年)에 만들어졌다. 黃은 《靈樞懸解自序》에서 “《靈樞》乃《素問》之原이니 凡刺法 腧穴 經絡 藏象이 皆自《靈樞》發之이나 而錯亂舛互하니 亦與《素問》相同이라.”⁴⁵⁾라 하여 《靈樞》가 《素問》의 根源이라고 하였고 《素問》과 같이 錯簡되었다 하여 이 冊이 9卷, 81篇으로 나뉘어 있는데 《靈樞經》의 編次를 다시 새롭게 調整하여 刺法, 經絡, 營衛, 神氣, 藏象, 外候, 病論, 賊邪, 疾病 等 9類로 나누었으며 各篇의 經文은 段落으로 나누어 詮釋을 하였는데 經絡腧穴과 病能刺法 等の 理論에 많은 創見을 나타내

41) 黃元御撰, 上揭書(上卷), p.1.

42) 黃元御撰, 上揭書(上卷), p.344.

43) 丹波元胤編,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38-39.

44) 黃元御撰, 上揭書(上卷), p.11.

45) 黃元御撰, 上揭書(上卷), p.424.

었다⁴⁶⁾.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말하기를 “說者是 謂唐人剽取甲乙經爲之 하나不應與古書一例니 錯文이 亦姑存其說可也니라.”⁴⁷⁾라고 評하였다.

《難經懸解》는 乾隆21年 丙子年(西紀 1756年)에 만들어졌다. 黃은 《難經懸解自序》에서 “秦越人不能生死人이나 何今之偏能生死人耶아!天下之病 孰非當生者라도 遇越人而生이나 遇餘人而死니라.”⁴⁸⁾라고 하여 扁鵲에 對하여 稱頌하였고 또한 “妙理風生하야 疑叢霧散하니 此眞千古解人인저! 其見五藏癥結이 全恃乎此하니 不須長桑靈藥과 上池神水也니라.”⁴⁹⁾라 하였으니 《難經》에 對한 그의 觀點을 볼 수 있다. 이 冊은 2卷으로 나누었는데 黃은 《素問》과 《靈樞》의 微蘊한 바를 闡發하였고 81篇의 順序를 다시 새롭게 調整하고 아울러 하나하나 詮釋하였는데 特히 人體尺寸部位, 脈法病能, 氣血營衛分屬, 左腎右命, 瀉南補北 等の 經旨에 對하여 提示하고 發揮하는 바가 있다⁵⁰⁾. 《難經懸解》에 對하여 馮承熙는 “偶得秘帙 亟付梓人하야 庶幾斯學晦而復明하고 微言絶而更續하니 播之後代하야 永永無窮耳니라.”⁵¹⁾라고 하여 極讚하였다. 그러나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말하기를 “有今本所不載者나 然其文自三國以來로 不聞所竄亂이라. 元御는 亦謂舊本有譌라하야 復多所更定하니 均所謂我用我法也니라.”⁵²⁾라고 批判을 加하였다.

《傷寒懸解》는 乾隆13年 戊辰年(西紀 1748年)에 完成되었는데 이 冊은 《傷寒論》을 詮釋하여 지은 것이다. 黃은 《傷寒懸解自序》에서 “縱觀近古傷寒之家數 十百種에 歲歷三秋나 猶爾茫若 仰鑽莫從니라.”⁵³⁾라고 하고 또 “仲景著書가 幾何年矣호대 而千載塵封하야 迄無解者라. 今日之作인댄 縱爾敝精勞神하면 不得已也니라.”⁵⁴⁾라 하여 《傷寒懸解》를 著述한 理由를 說明하고 있다. 이것은 《傷寒論》을 編次를 다시 새롭게 하여 14卷으로 合하고 脈法, 太陽本病, 太陽壞病, 陽明實證, 陽明虛證, 少陽本病, 少陽壞病, 太陰藏病, 少陰藏病, 厥陰藏病, 傷寒類證, 汗下宜忌 等 12類別로 나누어 《傷寒論》에 對하여 條目條目 詮釋하였고 아울러 ‘仲景微旨’를 撰하여 冊 첫머리에 놓고 冊 끝에는 ‘傷寒例’를 붙였다. 解釋한 글은 仲景의 깊은 뜻을 闡發하였으며 《傷寒論》의 精髓를 찾아서 理致와 意義가 精密하고 새로우니 홀로 特色을 갖추었다. 《傷寒懸解》는 《傷寒》을 詮釋한 홀

46) 黃元御撰, 上揭書(上卷), p.1.

47) 丹波元胤編, 上揭書, p.48.

48) 黃元御撰, 上揭書(上卷), p.622.

49) 黃元御撰, 上揭書(上卷), p.622.

50) 黃元御撰, 上揭書(上卷), p.1.

51) 黃元御撰, 上揭書(上卷), p.621.

52) 丹波元胤編, 上揭書, p.80.

53) 黃元御撰, 上揭書(中卷), p.6.

54) 黃元御撰, 上揭書(中卷), p.7.

룡한 著作이다⁵⁵⁾. 張琦는 이 冊에 對해서 《傷寒懸解後序》에서 “後得黃氏元御 <傷寒懸解>니 綱領振擧하며 條理綜貫하고 積疑盡釋하며 豁然遂通이니라.”⁵⁶⁾고 하였다. 그러나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말하기를 “凡舊文之譌亂者를 悉爲更定 하니 未載駁正王叔和序例一卷과 以糾其失은 其持論甚高라. 考傷寒論舊本하면 經王叔和之編次하야 已亂其原次니라. 元御는 以爲錯文에 較爲有據하니 與所改素問靈樞難經과 出自獨斷者不同이라. 然果復張機之舊與否은 亦別無佐證也이니라.”⁵⁷⁾라고 하였다.

《金匱懸解》는 乾隆13年 戊辰年(西紀 1748년)에 著作이 完成된 冊으로 이 冊은 《金匱要論方論》을 詮釋한 著作이다. 黃은 《金匱要論方論》의 舊卷을 破棄하고 順序를 다시 새롭게 하여 藏府經絡, 外感, 外感雜病, 內傷, 內傷雜病, 外科, 婦人 等 7類로 나누었고 22卷으로 合하여 《金匱懸解》라고 命名하였다. 每 類 앞의 黃이 撰한 文章은 그 概略을 記述하고 每 節의 經文뒤에는 모두 詮釋을 加하였다. 解釋한 文章은 深奧한 것을 알기 쉽게 表現하였으며 要點을 잡음이 精微롭고 마땅하였다. 飲食宜忌 3卷을 자세히 살펴보면 處方은 있고 論述이 없는데 黃은 이를 亡靈되이 解釋을 加하지 아니하고 다만 2卷을 記錄하여 배우는 者들에게 읽고 研究할 수 있도록 提供하였다⁵⁸⁾.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말하기를 “大旨主於扶陽氣니 以爲運化之本하고 自滋陰之說勝하니 而陽自陰升하고 陰由陽降之理라. 迄無解者을 因推明其意하야 以成此書하니 於四診九候之法에 言之頗詳이라.”⁵⁹⁾라고 하였다.

《傷寒說意》는 乾隆 19年 甲戌年(西紀 1754年)에 完成된 冊으로 이 冊은 《傷寒論》을 闡釋하여 지은 著作이다. 黃은 《傷寒論》을 精密하게 研究하여 깨달음이 있어 이미 《傷寒懸解》를 撰한 然後에 言語로써는 未盡함이 있음을 깊이 느껴서 이에 다시 《傷寒說意》10卷을 撰하였다. 이에 對하여 《傷寒說意自敘》에 “仲景拙於立言而巧於立意하니 <傷寒>之亡은 以其言也오 <傷寒>之傳은 以其意也라. 僕傳<傷寒>하니 說意而已라.”⁶⁰⁾라고 하였다. 이 冊은 六經의 次例에 依하였고 門을 나누고 類를 區別하여 仲景의 《傷寒論》의 넓은 뜻을 드높였다. 卷首에서는 六經解, 六氣解, 營衛解, 風寒解, 傳經解, 裏氣解를 論述하고 卷1에서 卷10에서는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經病과 그 壞病을 分別하여 記述하였

55) 黃元御撰, 上揭書(中卷), p.1.

56) 黃元御撰, 上揭書(中卷), p.7.

57) 丹波元胤編, 上揭書, pp.373-374.

58) 黃元御撰, 上揭書(中卷), p.1.

59) 丹波元胤編, 上揭書, p.487.

60) 黃元御撰, 上揭書(中卷), pp.531-532.

다. 《傷寒論》의 一理, 一法, 一方, 一藥, 一脈, 一證에 對하여 모두 하나하나 解釋을 하여 闡揚하였는데 裏氣의 重要한 意義와 陽氣의 主導的인 作用을 強調하였으니 문득 獨特한 見解를 갖추었다. 《傷寒懸解》를 縱橫으로 相互 輔佐하여 드디어 仲景의 精微로운 意義를 가려서 남겨 놓은 것이 없었다⁶¹⁾.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말하기를 “元御이 既作傷寒懸解라. 謂論文簡奧하니 非讀者所能遽曉하니 乃會通大意하여 後著此書니 以開示初學之人門徑이니라.”⁶²⁾이라고 評하였다.

《四聖心源》은 乾隆18年 癸酉年(西紀 1753年)에 冊이 完成되었는데 이것은 黃이 內外感傷을 論述하여 著作한 것이다. 黃帝, 岐伯, 越人, 仲景의 四聖이 내려왔으나 醫者는 每번 聖訓을 버리고 準繩을 廢棄하였었는데 黃이 밝게 四聖의 偉業에 達하였으니 이에 四聖의 經典을 精蘊함을 本으로 하여 諸家의 長點을 모아서 자기의 見解를 融合하여 內外的 百病을 論述하여 10卷으로 나누어 《四聖心源》이라 命名하였다. 卷1에서 卷3까지는 첫머리에 陰陽五行, 藏府經脈, 氣血營衛, 六氣脈法 等 東洋醫學의 基礎理論을 論述하였고 卷4에서 卷10까지는 곧 內科, 外科, 婦人科, 七竅 等の 諸科雜病의 辨證論治를 나누어 論述하였다. 이 冊은 理法方藥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四聖의 微妙한 意義를 새롭게 傳하였으니 醫者가 法을 따르고 읽고 研究하기에 資料로서 足하다⁶³⁾.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말하기를 “四聖者는 黃帝岐伯秦越人張機也라. 元御는 於素問靈樞難經傷寒論金匱玉函經五書에 已各爲之解니라. 復融貫其旨하여 以爲此書니라. 其文이 極爲博辯하고 而調勝於意者이 多니라.”⁶⁴⁾라고 하였다.

《四聖懸樞》은 乾隆18年 癸酉年(西紀 1753年)에 完成된 冊으로 이것은 溫病, 疫病, 痘病, 疹病의 專門的인 書籍이다. 黃은 歷代 醫家의 溫病, 疫病, 痘病, 疹病 等 4病에 對하여 자세히 研究하여 그 論述이 대단히 雜亂하여 두드러진 것이 없고 그 藥은 대부분 孟狼하며 精微롭지 아니하였으니 이에 《內經》, 《難經》의 經旨를 거슬러 魏晉以來의 論述을 參酌하여 《四聖懸樞》5卷을 撰하였다. 第1卷은 溫病을 論하고 第2卷은 疫病을 論하고 第3卷은 痘病을 論하고 第4卷은 疹病을 論하였다. 4가지 病의 처음과 끝을 辨析하였고 病因機轉은 六經辨證으로써 八綱을 解釋하고 諸方을 헤아린 바가 모두 四聖의 뜻을 으뜸으로 하였으며 時醫의 대부분 代代로 繼承된 技術에 對하여 溫涼을 辨別함이 없는 固陋한 慣習을 反駁하였다. 끝卷은 伊公의 4問으로 敍와 앞의 4卷의 詳細하지 않은 바를 補充하였다. 이 冊은 四聖의 微蘊을 發하였으며 前哲의 精密한 말을 採用하였고 要點을

61) 黃元御撰, 上揭書(中卷), p.1.

62) 丹波元胤編, 上揭書, p.461.

63)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1.

64) 丹波元胤編, 上揭書, pp.910-911.

잡음이 正當하였으니 홀로 特色이 있었다⁶⁵⁾.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말하기를 “國朝黃元御撰하니 是書은 謂寒疫 溫疫 痘病 疹病이 皆由於歲氣라고하니라.”⁶⁶⁾고 하였다.

《素靈微蘊》은 乾隆19年 甲戌年(西紀 1754年)에 完成된 冊이다. 黃은 《內經》을 무릇 20餘年間 研究하여 깊이 그 中の 큰 뜻과 微意를 얻어 臨床을 通하여 보다 더욱 더 理論이 豊富했다. 漸次 드디어 多年間에 마음에 얻고 醫案醫話를 撰하여 冊 1卷을 만드니 《素靈微蘊》이라 命名하였다. 이 冊은 4卷, 26篇으로 나눈는데 卷1에서 卷2는 10篇으로 하여 胎化, 藏象, 經脈, 營衛, 藏候, 五色, 五聲, 問法, 診法, 醫方 等を 論述하였고 卷3에서 卷4까지 16篇은 醫案과 醫話로서 그 論理를 記述하여 《靈樞》와 《素問》의 精微로움을 闡揚하여 깨닫도록 하고 要點을 啓發시켰으니 黃의 心法이 모두 이 冊에서 보인다⁶⁷⁾.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말하기를 “其說詆訶歷代名醫에 無所不至라. 以錢乙爲悖謬하고 以李杲爲昏蒙하며 以劉完素朱震亨爲罪孽深重하니 擢髮難數하야 可謂之善篤矣니라.”⁶⁸⁾라고 하였다.

《長沙藥解》는 乾隆18年 癸酉年(西紀 1753年)에 이루어진 書籍으로 이것은 仲景의 常用 方藥을 詮釋한 著作이다. 이 冊은 仲景書의 常用하는 藥物 162種을 取하여 나누어서 4卷으로 하였다. 藥物으로써 經을 삼고 處方으로 緯를 삼아서 每藥物의 아래 첫머리에 그 것의 性味, 歸經, 性情과 功用을 記述하고 繼續해서 《傷寒》, 《金匱》의 本 藥物을 使用하는 處方과 屎方證治를 記錄하여 하나의 詮釋한 書籍을 만들었다. 解釋한 文章은 멀리 《本經》의 論述과 前賢의 論述의 得失을 兼하여 살피서 簡明하고 正當하며 條理가 分明하고 詳細히 分析하여 眞實로 藥性を 辨別하였으니 仲景藥法의 보배를 크게 發揚하였다⁶⁹⁾. 그러나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말하기를 “然藥有藥之性味니 此不易者也라. 用藥有用藥之經緯니 此無定者也니 故로 有以相輔而用者와 有以相制而用者와 並有以相反相激而用者니라. 此當論方이나 不當論藥하니 但云某方有此藥하고 爲某證而用하며 某方有此藥하고 又爲某證而用하니 是猶求之於筌蹄也니라.”⁷⁰⁾라고 말하였다.

《玉楸藥解》는 乾隆19年 甲戌年(西紀 1754年)에 完成된 書籍으로 이것은 仲景書에서 使用치 않은 藥物을 論述하여 지은 冊이다. 黃은 이미 《長沙藥解》를 撰

65)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1.

66) 丹波元胤編, 上揭書, p.911.

67)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p.1-2.

68) 丹波元胤編, 上揭書, p.911.

69)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2.

70) 丹波元胤編, 上揭書, p.170.

한 後에 仲景의 使用치 않은 藥物과 臨床에서 常用하는 291種을 取하여 草部, 木部, 金石部, 果部(附穀菜部), 禽獸部, 鱗介魚蟲部, 人部, 雜類部로 나누어 8卷으로 合하여 1部를 만들었으니 《玉楸藥解》라고 命名하였다. 每 藥物의 아래에 먼저 그 性味, 歸經을 論述하고 繼續해서 功用, 主治를 論述하였다. 黃은 數十年間 本草를 研究하고 經驗하여 깨달은 것이 홀로 見解가 있었으니 그 모두를 다 論述하였고 或은 《神農本草經》의 論述을 引用해서 記錄하고 或은 前人의 本草學에서의 得失을 評價하였다. 內容이 크고 넓으며 文章이 簡潔하고 實用的이었으니 別途로 하나의 格式을 갖추었다⁷¹⁾.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말하기를 “大抵高自位置하여 欲駕千古而上之하니 故於舊說에 多故立異同하니 以矜獨解니라.”⁷²⁾라고 하였다.

《周易懸象》8卷은 《易》을 象으로써 爲主로하여 說明을 하였는데 象을 取하는 데는 대부분 《說卦傳》에 依據하였는데 問題는 荀氏의 九家逸象과 互體 等을 使用하고 納甲, 世應, 飛術 等の 類는 涉獵치 않았으며 역시 河圖와 洛書의 先天으로 推衍하지는 않은데 있다. 經傳體制의 順序는 鄭玄에 依據하고 아울러 《象》과 《象》 두가지를 經에 傳入시켜서 《文言》으로 合하여 1篇으로 만들었다. 王弼의 乾卦 次序를 改變한 것에 依據하여 뒤의 63卦는 相同하게 하였다. 吳澄의 《易纂言》이 《繫辭》의 19卦에 對한 說明을 分割한 것에 依據하여 대부분 《文言》에 插入시켰다. 그것은 또한 《繫辭》의 章의 順序를 紊亂케 하였는데 《說卦》를 分割하여서 《繫辭》를 補充하였고 또한 마음대로 兩篇의 文字를 줄였으니 곧 後에 批判을 받게 되었다⁷³⁾.

2. 黃元御의 學術思想

1) ‘懸解’字에 對한 考察

‘懸解’字에 對한 考察은 黃元御의 著書名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書名에 ‘懸解’라는 單語를 使用하였으므로 이 글자에 對한 考察이 必要하리라고 보아 아래와 같이 考察하였다.

《漢韓大字典》을 살펴보면 ‘懸’字에 對하여 (1) 달 현. 매듭. (2) 달릴 현. 매달림. (3) 걸 현. ① 손쉽게 벗길수 있도록 매듭. 揭示함. ② 현상금을 걸고 목적물을 구함. (4) 현격할 현. 서로 동떨어짐. (5) 멀리 현. 떨어져서. (6) 빛 현. 부채. 라⁷⁴⁾

71)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2.

72) 丹波元胤編, 上揭書, p.170.

73) 呂紹綱編, 周易辭典, 長春市, 吉林大學出版社, 1992. p.932.

하였고 ‘解’字에 對하여서는 (1) 풀 해. ① 맨 것·워힌 것등을 풀. ② 원한·화 등을 씻어 버림. ③ 의심나는 것을 밝혀 알게 함. 또는 설명함. ④ 변명함. ⑤ 이해 함. 납득이 감. ⑥ 자유롭게 함. ⑦ 파면함. (2) 가를 해. 쪼개어 나눔. (3) 흠을 해, 흠어질 해. 헤어지게 함, 또 헤어짐. (4) 벗을 해. 신 따위를 벗음. (5) 열 해. 닫은 것을 열. (6) 떨어질 해. 탈락함. (7) 보낼 해. 지방의 학문·덕행이 뛰어난 자를 서울에 보내어 과거를 보게 함을 ‘發解’, ‘發送’이라 함. 轉하여 널리 보내는 뜻으로 씀. (8) 능히 해. 能과 같은 같은 뜻. 주로 詩에 씀. (9) 쾌이름 해. 64卦의 하나, 坎下震上으로서 곤란에서 벗어나는 象. (10) 게으를 해. 懈와 尙字. (11) 마을 해. 靡와 尙字⁷⁴⁾라 하였다. 또한 《中文大辭典》에서 ‘懸’字에 對하여 (1)掛也 繫也. <正字通> “懸掛也.”, <孟子公孫丑上> “猶解倒懸也.”, <後漢書 費長房傳> “以朽索懸萬斤石于心上.”, <梁簡文帝藉田賦> “地廣重畦淨 林芳翠幕懸.”, <李白 月照寒泉賦> “素波洞出 孤影孤懸.”(2)虛也. 如云懸想. 懸擬 按懸則凌空 故訓爲虛. <庾信擬詠懷詩> “遙看塞北雲 懸想厥山雪.”⁷⁶⁾ 등이 있다 하였고 ‘解’字에 對하여서는 음이 해인 경우만 (1)稅也 脫也. <方言 十二> “解 稅也.”, <禮記 曲禮上> “解履不敢當階.”, <疏> “解 脫也.”(2)放也. <管子 五輔> “是故上必寬裕而有解舍.”, <注> “解 放也.”. (3)離散其心也. <漢書 陳餘傳> “恐天下解也.”, <注> “師古曰解 謂離散其心也.”, <呂氏春秋 決勝> “民解落.”, <注> “解 散.”. (4)經傳之注釋也 釋義說明也. <禮記 經解 經解第二十六疏> “以爲 經解者 皇氏云 解者分析之名 此編分析六經禮教不同 故名曰經解也.”, <謝靈運 辨宗論> “求解言外.”⁷⁷⁾ 등의 意味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懸解’字에 對하여 《漢韓大字典》에서는 “거꾸로 매달린 것 같은 큰苦痛을 벗어남”이라고 하였다⁷⁸⁾. 또한 《辭源》에서는 “道家語. 意指對哀樂得失無動於心. 莊子大宗師 ‘且不得者時也 失者順也 安時而處順 哀樂不能入也 此古之所謂懸解也’. 懸 古作‘縣’. 文選晉左太沖(思)吳都賦 ‘否泰之相背也 亦猶帝之懸解而與桎梏疏屬也’. 引申爲解倒懸 卽在困境中得救. 後漢書六六王允傳論 “若王允之推董卓而引其權 伺其間而敵其罪 當此之時 天下懸解矣.”⁷⁹⁾라 하여 첫번째로 哀樂得失이 마음에서 움직이는 바가 없어 마음이 便安한 바를 말하였고 두번째는 困

74) 李相殷監修,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館編輯局, 1994. pp.492-493.

75) 李相殷監修, 上揭書, p.1132.

76)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中華學術院, 1985. pp.5512-5513.

77)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上揭書, p.13328.

78) 李相殷監修, 上揭書, p.493.

79) 廣東·廣西·湖南·河南辭源修訂組商務印書館偏執部編, 辭源,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7. p.638.

境한 경우에서 救해낸다고 하였다. 또한 《中國氣功辭典》에서는 “莊子大宗師 ‘且不得者時也 失者順也 安時而處順 哀樂不能入也 此古之所謂懸解也.’ 指面對紛亂的社會環境而不受束縛 情緒穩定衣食平和”⁸⁰⁾라 하여 紊亂한 社會環境에 對하여 束縛을 받지 않고 情緒를 穩定케 하고 意識을 平和롭게 되는 것을 말하였다. 또한 《中文大辭典》에서는 “超越生死憂樂之謂. <後漢書 王允傳> ‘當此之時 天下懸解矣.’, <莊子 養生主> ‘適來夫子時也 適去夫子順也 安時而處順 哀樂不能入也 古者謂是帝之縣解.’, <注> ‘以有係者爲縣 則無係者縣解矣 縣解而性命之情得矣 此養生之要也.’, <釋文> ‘崔云 以生爲縣 以死爲解.’, <疏> ‘夫死生不能係 憂樂不能入者 而遠古聖人謂是天然之解脫也.’, <文選 左思 吳都賦> ‘亦猶帝之懸解 而與夫桎梏疏屬也.’”⁸¹⁾라고 하였다. 《孟子·公孫丑章丘上·一章》에 “當今之時 萬乘之國 行仁政 民之悅之 猶解倒懸也 故事半古之人 功必倍之 惟此時爲然.”⁸²⁾라고 하여 거꾸로 매달린 것을 풀어준다는 것으로 ‘猶解倒懸’이라 하였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黃은 自己의 著書 곧 《素問懸解》, 《靈樞懸解》, 《難經懸解》, 《傷寒懸解》, 《金匱懸解》라고 하여 ‘四聖’의 著書에 註釋을 한 冊에 對하여 ‘懸解’字를 使用하였는데 《素問懸解自序》에 “醫尊四聖이 自今日始에 仲景二注已成이나 岐黃扁鵲之書는 迄無解者하니 三聖之靈이 未無遺恨인저!”⁸³⁾라고 하고 《金匱懸解自敘》에 “仲景先師는 憂念元元하고 意濟後來하여 知其解者를 旦暮俟之라. 千百年來에 竟索解人不得이니 此眞欲廣文通恨事니니라.”⁸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四聖이 後學이 自身들의 微旨를 풀지 못하는 것을 보고 苦痛스러워 하는 것과 또한 《傷寒懸解自序》에 “古聖之書는 晦於訓詁者固多하고 而後人之心은 誤於箋疏者不少라.”⁸⁵⁾고 하여 諸醫家의 註解가 풀지 못한 經旨를 黃氏 自身이 풀었다는 意味로 곧 거꾸로 매달린 것 같은 苦痛에서 풀어준다는 뜻의 ‘懸解’字를 自身의 註釋書의 題目으로 引用하였다고 思料된다.

2) 黃元御의 學術思想에 對한 考察

① 中氣의 脾胃升降을 重視

(가) 中氣에 對한 概念과 理論의 根據

黃은 《內經》을 읽고 “升降出入無器不有”의 깊은 意義를 깨닫고 運氣의 學術

80) 呂光榮主編, 中國氣功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410.

81)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上揭書, p.5516.

82) 成百曉譯註, 懸吐完譯孟子集註,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p.81.

83) 黃元御撰, 上揭書(上卷), p.8.

84) 黃元御撰, 上揭書(中卷), p.288.

85) 黃元御撰, 上揭書(中卷), p.6.

을 깊이 研究하여서 氣化의 理論에 對하여 얻은 바가 있어 中氣의 升降이 人體 生命活動의 原動力이고 源泉이라고 提示하였다⁸⁶⁾.

그는 中氣에 對하여 《四聖心源·卷四·勞傷解·中氣》에서 “脾爲己土로 以太陰而主升하고 胃爲戊土로 以陽明而主降하니 升降之權은 則在陰陽之交니 是謂中氣라.”⁸⁷⁾라고 하였고 또 “中氣者는 和濟水火之機하며 升降金木之軸이니 道家謂之黃婆니라.”⁸⁸⁾라고 하였으며 《四聖心源·卷一·天人解·陰陽變化》에서는 “中氣者는 陰陽升降之抽軸으로 所謂土也라.”⁸⁹⁾고 하였고 《四聖心源·卷一·天人解·藏府生成》에서는 “祖氣之內에 含抱陰陽인댄 陰陽之間에 是謂中氣라. 中者는 土也라.”⁹⁰⁾라고 하였으며 《素靈微蘊·卷四·反胃解》에 “中氣在陰陽之交니 水火之分하고 不燥不濕하며 不熱不寒이라.”⁹¹⁾라고 하였다. 또한 《四聖心源·卷三·脈法解·浮沈大小》에는 “升降陰陽之權은 全在乎中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곧 中氣는 祖氣內에 있는 陰陽의 交叉하는 사이에 있는 것으로 五行에 있어서는 土가 되고 六氣에 있어서는 濕이 되는데 이 土의 升降을 水火의 機氣를 和濟하고 金木을 升降케 하는 軸으로서 이것의 升降運動은 六經의 太陰과 陽明으로 이루어진다고 認識한 것이다. 결국 中氣란 靜性이 아닌 升降하면서도 軸이 되는 動性의 氣運을 意味이다.

그의 이러한 中氣에 對한 認識은 自然界의 陰陽變化規律을 살피고 天人相應觀을 運用하여 자기의 觀點을 論證하는 것에서 根源한다. 《四聖心源·卷一·天人解·陰陽變化》에서는 “陰陽未判에 一氣混茫이라. 氣含陰陽니 則有清濁인댄 清則浮升하고 濁則沈降하니 自然之性也라. 升則爲陽하고 降則爲陰하야 陰陽異位로 兩儀分焉이라. 清濁之間에 是謂中氣라하니 中氣者는 陰陽升降之抽軸으로 所謂土也라. 抽軸運動으로 清氣左旋하면 升而化火하고 濁氣右轉하면 降而化水니라. 化火則熱하고 化水則寒이니라. 方其半升하면 未成火也니 名之曰木이라. 木之氣溫인댄 升而不已하야 積溫成熱하면 而化火矣라. 方其半降하면 未成水也니 名之曰金이라. 金之氣涼인댄 降而不已하야 積涼成寒하야 而化水矣라. 水 火 金 木은 是名四象라 하니라. 四象은 卽陰陽之升降이오 陰陽은 卽中氣之浮沈이라. 分而名之하면 則曰四象이오 合而言之하면 不過陰陽이니 分而言之면 則曰陰陽也오 合而言之면 不過中氣所變化耳니라 …… 土合四象이면 是謂五行也라하니라.”⁹²⁾고 하였으니 곧 宇

86) 劉桂榮, 黃元御“中氣升降”淺探, 山東, 山東中醫學院學報, 1990年 1月, p.20.

87)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61.

88)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p.61-62.

89)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25.

90)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27.

91)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316.

92)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p.25-26.

宙의 始作은 陰陽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고 一氣가 混沌한 中에 處하였을 때 마땅히 一氣가 나뉘어져 陰陽으로 되었을 때 淸濁이 있게 되어 淸한 것은 升浮하게 되고 濁한 것은 沈降하게 되니 그 本性이 升하는 것은 陽이요, 濁한 것은 陰이 되고 化한 것은 兩極이 되었으니 淸濁의 사이에 陰陽의 交際가 있어 蘊藏되어 中氣가 되었다고 하였다. 中氣는 陰陽升降의 樞軸이니 所謂 土라하며 이것은 樞軸의 運動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淸氣가 升한 즉 火로 化하게 되고 濁氣가 沈한 즉 水로 化하게 되는데 火로 化한 것은 熱하고 水로 化한 것은 寒하다. 처음에 升하다가 火를 이루지 아니한 것은 木이라 命名하니 木氣는 溫升하여 繼續하게 된 즉 溫을 累積시켜 熱을 이루게 되어 火로 化하게 되며 처음에 下降하다가 오히려 水를 이루지 아니하였을 때를 金이라 命名하니 金氣는 涼降함을 그치지 아니하면 涼을 累積시켜 寒을 이루어 水로 化하게 된다. 水, 火, 金, 木은 四象이라 稱하는데 土가 四象에 合하여 五行을 이루게 된다⁹³⁾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곧 黃은 《素靈微蘊·卷一·胎化解》에서 “<河圖>之數에 天一生水하야 地六成之라하니 此陽之動極而靜하야 一陰生於午也인댄 陰盛則下沈九地而爲水하니 而其生水之根은 則在於天이라. 地二生火하야 天七成之라하니라. 此陰之靜極而動하야 一陽生於子也인댄 陽成則上浮九天而爲火하니 而其生火之根은 則在於地라. 天三生木하야 地八成之라하니라. 陽自地生하야 未浮於天而爲火하야 先升於左而爲木이니 得乎天者親上이라하니 陽動而左升하니 故曰天生이라. 地四生金하야 天九成之라하니라. 陰自天生하야 未沈於地而爲水하야 先降於右而爲金이니 得乎地者親下라하니 陰靜而右降하니 故曰地生이라.”⁹⁴⁾고 한 論述에 依據하면 五行의 生成이 陰陽匹偶의 變化로 因한 것으로 五行은 各自 陰陽之氣의 作用을 잡아 動하는 바요, 靜한 것이 아닌 것⁹⁵⁾으로 볼 수 있다. 五行은 곧 土로부터 始作하여 未升하면 化木이요, 升하면 化火요, 未降하면 化金이요, 降하면 化水라 하여 土氣의 升降을 五行發生의 起源으로 보았으니 四象은 土氣에 依하여 調節된다고 觀察한 것이다. 이러한 觀點은 黃의 自然界의 陰陽變化規律과 天人相應觀을 運用하여 提示한 것이다.

(나) 中氣의 生理的인 側面에 對하여

먼저 藏府에 對하여 살펴보면 《四聖心源·卷一·天人解·藏府生成》에서 “中者는 土也니 土分戊己인댄 中氣左旋이면 則爲己土요 中氣右轉이면 則爲戊土니라. 戊土爲胃요 己土爲脾니라. 己土上行하야 陰升而化陽하며 陽升於左하면 則爲肝이오 升於上하면 則爲心이라. 戊土下行하야 陽降而化陰하며 陰降於右하면 則爲肺오

93) 劉桂榮, 上揭書, p.20.

94)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259.

95)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531.

降於下하면 則爲腎이라. 肝屬木而心屬火오 肺屬金而腎屬水라. 是人之五行也라. 五行之中에 各有陰陽이니 陰生五藏이오 陽生六府니라.”⁹⁶⁾고 하였으니 이는 中氣인 土에 配屬되는 脾胃를 抽軸으로 各各 升降의 機氣가 있게 되어 五藏이 生成된 것으로 본 것이다. 또한 《四聖心源·卷三·脈法解·眞藏脈義》에서 “土者是 四維之中氣也라. 脾以陰土而含陽氣하니 故曰脾陽左升則化肝木이오 胃以陽土而胎陰氣하니 故胃陰右降則化肺金이라. 金降於北하야 涼氣化寒하면 是謂腎水라하고 木升於南하야 溫氣化熱하면 是謂心火라하니라. 四象攸分은 實則脾胃之左右升降而變化者也라.”⁹⁷⁾라고 하여 藏府의 基本的인 升降運動은 脾胃에서 調節됨을 나타냈다. 이러한 論理는 《素靈微蘊·卷一·藏象解》의 “五行之理는 相生以氣하니 非相生以質이라 …… 地之木火土金水者는 五行之質也오 天之風熱濕燥寒者는 五行之氣也라.”⁹⁸⁾고 하였으니 藏府生理에 있어서도 氣化의 觀點에서 나타낸 것이다.

氣血의 根源에 對해서 黃은 《四聖心源·卷四·天人解·氣血原本》에서 “肝藏血하고 肺藏氣인댄 而氣原於胃오 血本於脾니라. 蓋脾土左旋하야 生發之令暢하니 故溫暖而生乙木하고 胃土右轉하야 收斂之政行하니 故清涼而化辛金이라. 午半陰生인댄 陰生則降하니 三陰右降하면 則爲肺金이라. 肺金은 卽心火之清降者也니 故肺氣清涼而性收斂이라. 子半陽生인댄 陽生則升하니 三陽左升하면 則爲肝木이라. 肝木은 卽腎水之溫升也니 故肝血溫暖而性生發이라. 腎水溫升而化木者는 緣己土之左旋也니 是以脾爲生血之本이라. 心火清降而化金者는 緣戊土之右轉也니 是以胃爲化氣之原이라.”⁹⁹⁾고 하여 氣는 肺가 藏하는데 心火를 戊土인 胃가 右轉하면서 下降하여 金으로 化하여 清涼하게 하여 肺藏氣하게 하므로 胃가 化氣의 本이요 血은 肝이 藏하는데 腎水가 左旋하면서 上升하여 肝으로 化하여 溫暖하게 하여 肝藏血하게하니 己土인 脾를 生血의 本이라고 하여 氣血의 根源을 認識한 것이다. 곧 《長沙藥解·卷一·甘草》에 “脾胃者는 精神氣血之中皇이라.”¹⁰⁰⁾고 한 것과 같다. 黃의 이러한 論點은 《內經》의 “人之所受者는 穀也오 穀之所注者는 胃也오 胃者는 水穀氣血之海也라.”, “五臟六腑皆稟氣於胃라.”라고 하여 胃의 全身을 營養함은 “必因於脾乃得稟也”라고 한 意義를 發展시켜서 人體에서 精華를 滋生하여 輸布하는 것은 脾胃의 升降에 말미암음이 없다고 認識한 것이다¹⁰¹⁾.

精과 神에 對하여 黃은 《四聖心源·卷四·天人解·精神化生》에서 “陰中有陽이

96)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27.

97)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49.

98)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262.

99)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27.

100)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349.

101) 劉桂榮著, 上揭書, pp.20-21.

면 則水溫而精盈하고 陽中有陰이면 則氣清而神旺이라. 神發於心하니 方其在肝엔 神未旺也니 而已現其陽魂이오 精藏於神하니 方其在肺엔 精未盈也니 而先結其陰魄이라. …… 蓋陽氣方升하나 未能化神이면 先化其魂이오 陽氣全升이면 則魂變而爲神이라. 魂者는 神之初氣니 故隨神往來니라. 陰氣方降하나 未能生精이면 先生其魄이오 陰氣全降이면 則魄變而爲精이라. 魄者는 精之始基니 故並精而出入也니라.”¹⁰²⁾라고 하여 神은 魂에서 孕胎되어 心에서 發하고 腎을 根本으로 하고 精은 魄에서 孕胎해서 腎에서 藏하며 心에 뿌리를 두었다고 認識하였다. 離中の 陰은 곧 腎의 眞水요, 坎中の 陽은 곧 心의 陽神이요, 腎중에 精을 涵養하여 飛揚치 아니하고 精中에 腎을 藏하고 遺泄치 아니하니 神의 發함은 木水의 介에 依存하고 精의 藏함은 반드시 金火의 降함에 依存하니 이른바 《素靈微蘊·卷三·驚悸解》의 “精은 秉于金火하고 而氣는 諧于水木也니라.”이다. 이것은 비로소 坎離가 既濟하게 되어 精神이 또한 안게 되어야 能히 오고 藏하고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根源을 살펴보면 實際로 中土의 陽旺한데 있으니 中氣가 잘 旋運한 結果는 黃이 《金匱懸解·虛勞篇》에서 말한 “脾升胃降之氣는 是胃中氣니 …… 其位는 坎離之中으로 戊己之界이니 此卽生神之祖氣이고 胎化之元神이며 陰陽之門이고 天地之根也니라”라고 한 것이다¹⁰³⁾. 곧 精華가 위로 奉行되어 氣血이 되어 氣는 肺에 充滿케 되고 血은 肝에 藏하게 되는데 肝血이 溫升하면 곧 化하여 陽神이 되며 肺氣가 清降하면 곧 化하여 陰精을 이루게 되니 이와 같은 즉 五臟이 모두 腎에서 精을 받고 心에서 神을 받으며 肝에서 血을 받고 肺에서 氣를 받게 된다. 血의 流注, 氣의 輸布는 모두 中氣에서 統率하니 그래서 氣, 血, 精, 神은 實際로 一物이니 中氣의 變化로 말미암은 것이다¹⁰⁴⁾.

黃은 胎의 化成過程에서도 中氣를 重視하였으니 《四聖心源卷十·婦人解·胎妊解》에서 말하기를 “胎妊者는 土氣所長養也라. …… 土者는 所以滋生氣血하니 培養胎妊之本也라. 木火는 以生長之하고 金水는 以收成之하니 土氣充周하면 四維寄旺涵養而變化之하면 五氣皆足하니 十月而生矣라.”라고 하여 사람의 胚의 化成果 胎兒의 生長過程에 對하여 作用하는데 있어서 胚胎는 土氣가 滋養하는 바로 말미암는다고 認識하였다. 胎를 이루는 時期에 있어서 兩精이 相薄하고 二氣가 妙하게 凝聚하면 清氣는 上升하고 濁氣는 下降하게 되어 陰陽의 基礎가 되며 血이 濡養하게 되어 神魂을 化生하게 되며 氣가 溫煦하게 되어 精魄을 化生하게 된다¹⁰⁵⁾. 또한 그는 사람은 氣化로써 生하고 物은 氣化를 따라서 成하며 陽氣의 運行

102)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28.

103) 趙文學, 論黃元御升運脾陽的醫學思想, 上海, 上海中醫藥雜誌, 1990年 第4期. p.40.

104) 劉桂榮, 上揭書, p.21.

105) 劉桂榮著, 上揭書, p.20.

不息은 生命活動의 象徴이라고 認識하였다. 그는 《素靈微蘊·卷一·胎化解》中에서 生命孕育過程中 陽氣의 作用을 깊게 研究하여서 “兩精相搏하여 合而成形인댄 未形之先엔 爰有祖氣이니 人以氣化而不以精化니라. 精如果中之仁하고 氣如仁中之生意니 仁得土氣면 生意爲芽하고 芽生而仁腐하니 故精不能生이니 所以生人者는 精中之氣也니라.”라고 하였으며 또한 하나의 새로운 生命의 誕生은 다만 陰精에서 胎되는 것만이 아니라 特히 氣化를 얻어야 비로서 孕育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¹⁰⁶⁾.

中氣는 곧 脾胃의 升降運動氣機를 말함이니 中氣가 健運하면 胃가 降하여 善納하며 脾가 升하여 善磨하게 되니 水穀이 腐熟하여 精氣가 滋生하여 病이 없게 된다. 그래서 臟腑가 養함을 얻으면 脾가 上升하는데 腎肝이 역시 升하게 되어 水木이 鬱하지 않게 되며 胃가 下降하는데 心肺가 역시 下降하게 되어 金火가 滯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火가 下降하면 水가 下寒하지 않게 되고 水가 上升하게 되면 火가 上熱하지 않게 되니 健康한 이는 ‘下溫而上清’하게 된다¹⁰⁷⁾. 《四聖心源卷四·勞傷解·陰陽》에서 “濁氣不逆則陽降而化陰하고 陽根下潛而不上飛하며 清氣不陷則陰升而化陽하고 陰根上秘而不下走하니 彼此互根하면 上下環抱하니 是曰平人이라.”고 하여 中氣의 正常的인 升降이 陰陽을 化生하게 되어 陰陽二氣가 上下로 周流한 즉 清陽은 木火에서 生發하여 下陷에 이르지 않게 되며 濁陰은 金水에 收藏되어 上逆에 이르지 않게 된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中氣의 升降은 清濁의 升降과 또 陰陽相引, 水火共濟의 狀態로 表現한 것이다¹⁰⁸⁾.

(대) 中氣의 病理的인 側面에 對하여

黃은 氣化理論으로써 臟腑의 生理와 病理를 研究하였으며 거듭 後天의 氣 즉 脾胃의 中氣가 臟腑의 氣化活動中の 中樞的인 作用이 있음을 闡發하였다. 그는 脾土가 左升하면 肝血이 上行하여 心火로 化하게 되어 陽氣가 發生하고 胃土가 右降하면 肺氣가 下行하여 腎水를 化하게 하여 陰氣가 收藏되니 精, 神, 氣, 血 모두 中氣의 升降出入에 依存하니 도는 것이 마땅함을 얻으면 바야흐로 化源이 充滿하게 되고 모든 臟腑의 氣化가 和平하게 된다. 만약 中氣가 虛損하여 脾胃의 轉運升降이 主함이 없게되거나 或은 陰이 旺하고 濕이 旺하면 濕이 문득 壞鬱하여 不運하게 되니 곧 脾가 上升하지 못하여 清氣가 항상 무너지게 되고 胃가 下降치 못하면 濁氣가 上逆하게 된다고 하였다¹⁰⁹⁾. 또 六氣로서도 病理를 解釋하였으니 《四聖心源·六氣偏見》에 “足太陰脾以濕土主令하고 足陽明胃以燥金化氣하니

106) 朱邦賢, 崇陽黜陰의 《素靈微蘊》, 上海, 上海中醫藥雜誌, 1985年 4月. pp.42-43.

107) 劉桂榮, 上揭書, p.20.

108) 劉桂榮, 上揭書, p.21.

109) 朱邦賢, 上揭書, p.43.

濕爲本氣以燥爲化氣니 是以燥氣不敵濕氣之旺하여 陰易盛而陽易衰라.”¹¹⁰⁾이라고 하였으니 中氣의 升降失調하면 반드시 四維가 運行치 못하여 升降이 막히게 되어서 모든 臟腑의 生化의 氣機는 늦어지거나 法度를 잃어버리게 되니 반드시 病이 든다고 하였다. 이것이 黃의 人體 病理에 對한 基本的인 認識이다¹¹¹⁾.

《四聖心源·卷四·勞傷解·中氣》에서 말하기를 “中氣衰則升降窒하여 腎水下寒而精病하고 心火上炎而神病하며 肝木左鬱而血病하고 肺金右滯而氣病이니라. 神病則驚怯而不寧하고 精病而遺泄而不秘하며 血病則凝瘀而不流하고 氣病則痞塞而不宣하니라. 四維之病은 悉於中氣라.”¹¹²⁾고 하여 精, 神, 氣, 血의 病은 中氣에 달려 있다고 說破하였다. 또한 中氣升降失調는 脾陽虛에 있다하여 만약 脾陽이 不足한 즉 中氣가 不運하며 脾가 陷하고 胃가 逆하며 氣機의 升降이 反對로 作用하니 水木은 아래로 陷하게 되어 寒病이 되고 金火는 上으로 逆하여 熱病이 생긴다고 하였다. 만약 中氣가 虧虛하여 中樞가 不運하면 肝脾가 左에서 陷하고 胃가 右에서 逆하여 甚한 즉 陰陽이 離決하고 精神이 分散하게 되니 百病이 말미암아 生하고 이에 죽는 데까지 이른다¹¹³⁾고 認識하여 中氣의 重要性을 나타내었다.

氣血升降의 紊亂으로 일어난 各各의 病變 特點에 對하여 中氣 곧 脾胃의 升降 乖違는 역시 人體 氣血升降을 紊亂하게 하는 根本的인 原因이고 氣血의 升降이 紊亂하여서 臟器 部位의 不同함을 主하고 不同한 病變의 特徵이 있게 된다. 肺는 右側에 位置하여 氣를 藏하는 것을 主하며 氣는 性質이 清肅하고 降斂하여서 胃土가 右降하면 肺氣는 必야흐로 肅降하게 되는데 만일 胃가 順調롭게 下降하지 못하면 肺氣上逆을 氣滯證이 나타난다 하였다. 血病에 對하여 肝은 左側에 位置하여 血을 藏하는데 血性은 溫和하고 升散하며 脾土가 左旋하면 肝血이 必야흐로 能히 溫升하게 되는데 脾가 健全하게 上升하지 못하면 肝血의 下陷과 瘀血症이 나타난다고 하였다¹¹⁴⁾.

內傷雜病에 對하여 만일 土濕의 陽이 衰하여 中氣가 滯鬱하여 樞軸이 不運하게 되면 驚悸, 奔豚, 遺精, 不寐 等の 病이 이루어 發生하는데 悸는 肝氣의 막힌 것으로 枝葉이 위에서 鬱하여 肝氣가 振搖하게 되는 바요, 驚은 이에 膽氣가 能히 順降하지 못하여 뿌리가 아래에서 끌어올려 膽氣가 이로 말미암아 등등 뜨게 된다. 寤는 肝氣의 升發이요, 寐는 肺氣의 降斂이니 만약 肝氣가 左側에서 鬱하

110)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38.

111) 朱邦賢, 上揭書, p.43.

112)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61.

113) 趙文學著, 上揭書, p.40.

114) 遲炳周, 論黃元御執中治本的論治特色, 上海, 山東中醫雜誌, 1992年 1月, p.6.

면 밝은 대낮에도 자고자 하며 肺氣가 右側에서 鬱하면 밤새도록 잘 수 없게 되니 아울러 寤寐는 또한 衛氣의 逆行出入과 相關이 있다고 認識하였다. 遺精은 精이 神과 交合하지 못하고 肝脾가 升하지 않으며 生氣가 達하지 않은 所致요, 上熱下寒의 症狀은 모두 이것을 넘지 않는다. 黃은 《金匱懸解·虛勞篇》에서 말하기를 “土虛則火熱而水寒하고 金燥而木枯하며 中樞敗而四維不轉하니 故火金損而神氣病于上하고 水木損而精血病于下하니 會仲景建中之義하면 則血痺虛勞之病隨處逢源矣니라.”고 하였다¹¹⁵⁾.

精神升降의 悖逆으로 因한 病變特徵에 對하여 心은 위에 位置하여 神을 藏하는 것을 主하는데 神이 下行하여 精과 交流하면 安定되고 腎은 아래에 位置하여 精을 藏하는 것을 主하는데 精이 위로 神과 交濟하게 되면 秘하게 된다. 精神을 交濟시키는데 職責은 中宮에 있다. 中氣가 不運하여 岬가 右轉하지 못하면 神이 내려가는 길이 없어 위로 浮散하게 되니 驚悸가 나타나며 脾가 左旋하지 못하면 精이 升하는 길이 缺乏되어 아래로 내달리게 되니 遺泄이 나타나게 된다. 또 腎精이 遺泄하는 것에 往往 위로 神驚을 兼하게 되나 心神驚悸者는 오히려 아래에서 精遺를 보이지는 않는다¹¹⁶⁾.

傷寒에 있어서도 中氣를 重要視하였으니 少陰傷寒은 水가 能히 火를 해치지 못하고 오로지 中土로의 堤防에 의지한 즉 寒水가 汎濫하지 못하게 하여 君火를 可히 保存하는 故로 脾陽이 旺盛한 즉 少陰은 傷寒病에 걸리지 않는다. 例를 들어 《傷寒懸解·少陰篇》에서 “中氣一敗하면 堤防崩潰하여 寒水無制하고 侵凌君火하여 上之則飛灰不燃하고 下之則堅冰不解하니 雖有四逆 眞武之法이나 第恐陽神已去오 陰魄徒存니 挽之末露하여 桑榆難追니 故少陰之死證總因土氣之敗也니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脾陽이 人體의 튼튼한 기둥作用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 말하기를 《傷寒懸解·少陰篇》에서 “仲景于少陰之病而曰負趺陽爲順也인댄 少陰之竅妙具此一語니 無餘蘊矣라.”고 하여 少陰傷寒病의 治療는 趺陽을 돕고 少陰을 泄하는 것이 제일 重要한 意義임을 提出하였다. 厥陰傷寒은 水木이 邪氣에 合하고 趺陽의 腹背가 對適하여 받으니 生死의 關鍵은 역시 趺陽의 勝負에서 決定되는 故로 《傷寒懸解·厥陰篇》에 “少陰之病은 趺陽操其勝勢而多負于寒水하고 厥陰之病은 趺陽處其敗地而水木合邪하여 凌侮弱土니 焉有不負之理乎리오?”라 하였다. 이 때에 趺陽의 勝負는 少陰의 傷寒과 比較하여 急迫함으로 해서 趺陽이 劣勢에 處하면 吐利의 症狀이 太陰과 少陰의 것보다 더욱 甚해진다. 黃은 또 다른 方面으로 病機를 分析하여 厥陰을 위한 趺陽에 對하여 비록 強함을 依支하고

115) 趙文學, 上揭書, pp.40-41.

116) 遲炳周, 上揭書, p.6.

窮함을 凌蔑하나 또한 絶對적으로 生을 만나는 轉機가 있으니 厥陰을 위한 水火의 中氣, 陰盡陽生の 臟이 되고 이른바 厥陰中에 少陰이 보인다고 하나 비록 네 번 뿌연 하늘을 바라보매 하나의 曙光이 透過되어 드러나니 이것으로 해서 可히 能히 水氣를 繼承하고 역시 可히 能히 火氣를 支持하는 故로 《傷寒懸解·厥陰篇》에 “厥陰陰極之臟이니 陰極則陽生하고 挾母氣之寒하야 以賤土者이 厥陰也오 孕子氣之熱하야 以生土者는 亦厥陰也니 水木侵凌하면 土崩陽敗하니 忽而一線螢光溫存其中하니 中氣一甦하야 煦濡長養하야 漸而陽和四布하니 上下升沈하야 手足溫生하고 驅利皆止니 出寒谷而登春台하니 亦厥陰之功也니라.”라고 말하였다¹¹⁷⁾.

또한 그는 一體의 外感, 內傷, 雜病의 病機를 分析함에 있어서 最終적으로 《四聖心源·六氣解·六氣偏見》의 “一切內外感傷雜病은 盡緣土濕야.”¹¹⁸⁾라 하였으니 ‘土濕水寒’, ‘土敗陽衰’에 허물을 돌리는 것으로 立論의 根據를 삼았다. 이러한 그의 觀點은 《素靈微蘊·藏象解》의 “木氣過散則土不堅하니 故斂之以收氣오 火氣過炎則金不肅하니 故聚之以藏氣오 土氣過濕則水不升하니 故散之以風氣오 金氣過收則木不達하니 故溫之以熱氣오 水氣過潤則火不降하니 故燥之以土氣니라. 水升則火降하고 火降則金肅하며 金肅則木榮하고 木榮則土燥하며 土燥則水升하니 相生則無不及하고 相剋則無太過하니 生則見變化之妙오 克則見制伏之巧라.”¹¹⁹⁾라고 한 五行相生相剋의 理論에 根據한다.

(라) 中氣의 治療에 對하여

黃의 學術은 四聖의 微旨를 깊게 얻어 方을 構成하고 用藥하는데 仲景의 뜻을 熟練되이 暗誦하였는데 臨床에서 治療할 때에는 매번 窮究히하여 홀로 運用하였으며 또 대부분 經驗을 드러냈다. 土濕이 百病의 根源이라고 힘써 主張하였기에 泄水補火, 扶陽抑陰, 燥濕運土함이 處方遺藥하는데 一大宗法으로 삼았으니 《四聖心源·卷四·勞傷解·中氣》에 “中氣在二土之交니 土生於火而火滅於水하니 火盛則土燥하고 水盛則土濕하니 泄水補火와 扶陽抑陰하야 使中氣輪轉하면 清濁復位하니 却病延年之法이 莫妙於此이니라.”고 하였다¹²⁰⁾.

黃이 陰虛證을 治療하는데 가장 잘 使用하는 地魄湯은 甘草, 半夏로 培土降胃하며 五味자로 斂降肺金하고 麥門冬, 芍藥, 玄參으로 益金水하고 清上熱한다. 비록 調中順胃에 專念하였으나 또한 清心肅降하는 것을 잊지는 아니하였으니 處方中에 세가지의 下降시키는데 兼하여 빼풀어서 胃가 오직 下降하게 되면 火가 降하여 上熱이 없어지고 肺가 下降하여 곧 陰이 生해 根本이 있게 된다. 脾土가 左

117) 趙文學, 上揭書, p.41.

118)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38.

119)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263.

120) 劉桂榮著, 上揭書, p.21.

升하면 腎水와 肝木이 따라서 가하여 下陷하지 않게 되니 脾가 左側으로 가하지 못한 腎水の 下沈이나 肝木의 下陷에 對하여 下寒陽虛證으로써 表現하여 《四聖心源·卷四·勞傷解·陰陽》에 “是宜升肝脾以助生長하여 不止徒溫腎氣니라.”고 主張하였다. 마땅히 培中氣, 升脾陷하는 基礎에 있어서 陽虛下寒의 微하고 甚한 것을 살펴서 升達肝木, 溫暖腎陽하는 藥品을 參酌하여 使用하였다. 또한 陽虛證을 治療하는데 使用하는 天魄湯는 甘草, 茯苓, 人蔘으로 培土滲濕하여 脾陷을 升하게 하고 桂枝로 達升肝木하게 하며 附子, 乾薑으로 溫腎陽하여 暖脾하게 하였다. 비록 培土升脾에 뜻이 있으며 역시 達肝溫腎함을 잊지는 않았다. 處方中에 세가지의 升하는데 兼하여 나아가게 하여 오직 脾가 升하면 水가 升하여 곧 下寒이 점차 풀리며 木이 升하여 곧 陽이 化하여 根源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四維의 臟病은 그 病變部位와 特徵的인 不同으로 해서 施治하는데 다르게 되니 心火上炎에는 마땅히 清降하고 肺金上逆에는 마땅히 肅降하여야 하나 胃土의 右轉에 依據함을 窮究히 하여 모든 上病을 治療하는 法則에 ‘降’字를 나타내었다. 心肺는 위에 位置하니 天道를 따르는데 天道는 下降하는 것이 順이 된다. 腎水の 下寒은 마땅히 溫暖하게 하여야 하며 肝木의 下陷은 마땅히 升達케 하여야 하나 마침내는 脾土의 左旋에 依支하므로 모든 下病治法에 ‘升’字를 드러냈다. 肝腎은 아래에 位置하니 地道를 따르는데 地道는 升하면 곧 健하게 된다¹²¹⁾.

氣滯證에 對하여 《四聖心源·卷四·勞傷解·氣血》에서 “氣積於胸膈右肋에 宜泄肺胃以降之라.”라고 主張하였으며 또한 간곡하게 “清肺熱胃逆固是定法하나 但不可以寒涼之劑泄陽根而敗胃氣니라.”고 말하였다. 下氣湯이라는 處方을 만들어서 곧 氣滯證에 投藥하였다. 方中에 甘草, 茯苓, 半夏는 培土滲濕하고 橘皮, 杏仁, 五味子是 肅降肺氣하고 貝母는 輕清上熱한다. 方을 構成한 것은 調中降胃에 主眼點을 두었고 또 清金肅肺에도 留意하였는데 오직 肺胃가 아울러서 下降하면 滯한 氣가 下降함에 따라서 消滅하게 된다. 氣가 아래로 下降하더라도 能히 溫이 升하지 못하고 아래에 累積되어 氣積證이 發生하는 것에 對하여 黃은 《四聖心源·卷四·勞傷解·氣血》에서 “氣積臍腹左脇宜補肝脾以升之하라.”고 主張하였다. 곧 達鬱湯을 만들어 氣積證에 投藥하였다. 方中の 甘草, 茯苓, 乾薑은 培土滲濕, 暖脾升陷하고 桂枝는 達升肝木하고 砂仁, 鱉甲은 化氣磨積한다. 그 方이 構成된 趣旨는 扶中升脾를 重視하고 아울러 達肝溫陽하기를 願한 것이다. 오직 肝脾가 함께 升하면 積氣가 따라서 升하는데 점차로 홀어지게 된다¹²²⁾.

血病에 對하여 黃은 單純히 活血化瘀를 섬기기를 마땅히 하지 않고 當然히 活

121) 遲炳周, 上揭書, pp.5-6.

122) 遲炳周, 上揭書, p.6.

血化瘀의 陰柔한 藥中에 肝脾를 升達시키는 陽剛한 藥을 넣어야 한다고 認識하였다. 黃의 血瘀症을 治하는 破瘀湯은 桂枝, 乾薑으로 升達肝脾하고 丹皮, 丹參, 桃仁으로 活血化瘀하고 茯苓으로 培土滲濕하니 充分히 이러한 辨治原則을 나타낸 것이다. 肝脾를 溫升시키기를 버린다면 瘀血이 어찌 따라서 가하여 점차 흠어지겠는가? 肝血瘀症이 많고 木鬱風動하여 疏泄하되 收斂되지 않아 아래에서 使血과 溺血을 나타내는 것에 對하여 黃은 《四聖心源·卷四·勞傷解·氣血》에 “血在下焦則宜升라.”고 認識하였다. 마땅히 清涼柔潤한 藥만을 使用하지 않고 當然히 涼血柔肝清風하는 靜的인 藥에 升達肝脾하는 動藥을 넣어야 한다고 認識하였다. 使血을 治療하는 桂枝黃土湯(仲景의 黃土湯에 加桂枝한 것)은 阿膠, 地黃, 黃芩으로 涼血清風하며 泄熱하고 甘草, 黃土, 白朮로 燥土升脾하고 桂枝로 升達肝木하고 附子로 溫補腎陽한다. 靜藥의 降斂은 意義가 固脫에 있고 動藥의 升散은 趣旨가 升함에 있는 것이다. 黃은 桂枝, 附子の 辛燥로 因한 動血을 버리지 않고 使用치 않음이 없었으니 그 人膽함과 識見은 超人的이었으며 胸中에 이미 打算이 있었다. 血이 上升하되 降斂하지 못하고 上溢하여 吐血, 衄血하는 것에 對하여 黃은 肺胃의 上逆을 責하였다. 《四聖心源·卷四·勞傷解·氣血》에 “吐衄之證은 總以降胃爲主라.”고 強調하였다. 肺氣를 肅降하고 上熱을 輕清시키는 藥品으로 輔弼하였다. 衄血을 治療하는 仙露湯과 吐血을 治하는 白茅湯, 靈雨湯은 항상 順降胃逆하는 半夏를 使用하였으며 아울러 降胃하는 藥에 半夏보다 妙한 藥은 없다고 認識하였으니 《長沙藥解·卷一·半夏》에는 “半夏辛燥開通하니 沈重下達하야 專入胃府而降逆氣하고 胃土右轉하야 濁痰掃蕩하며 肺腑沖和하야 神氣歸根하니 則鶴胎龜息하고 綿綿不絕竭矣니라.”고 하였다. 然後에 火炎金逆의 多少를 살펴서 清心降火하는 麥門冬이나 芍藥, 降斂肺金하는 側白朮이나 五味子を 配伍한 後에는 心火肺金한 것이 胃土의 右轉에 따라 下降하게 되니 上逆한 血이 역시 下行하게 되어 다시 上溢하지 않게 된다. 血脫은 같되 外脫하는 部位의 不同으로 해서 辨治에 不同이 있으니 血이 下脫하게 된 것은 肝脾의 下陷에 허물이 있으므로 治療는 마땅히 斂中寓升하야 하고 陷한 것을 올리면 血의 下脫은 더 이상 없게 되며 血이 上溢하는 것은 肺胃의 上逆에 責任을 물으니 治療는 마땅히 斂中寓降하야 하며 上逆을 平靜한 즉 血의 上溢은 緣故가 없게 된다¹²³⁾.

黃의 神驚症을 治하는 金鼎湯과 精遺症을 治療하는 玉池湯 이 두 處方은 모두 甘草, 茯苓으로 培土滲濕하고 達肝斂膽하는 芍藥, 桂枝로써 建中시키고 龍骨, 牡蠣로 藏精聚神하였다. 不同함이 있는데 金鼎湯은 主로 神驚을 治하니 半夏를 많이 使用하여 降胃하였으니 胃降하면 神이 沈潛되어 뜨지 않게 되고 玉池湯은 主

123) 遲炳周, 上揭書, p.6.

로 精遺를 治하니 方中에 溫腎暖脾하는 附子를 用하였으니 腎暖脾升하게 되면 精이 升하여 내달리지 않게 된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黃의 神驚精遺의 治療는 當然히 執中培土하고 升降兼調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四聖心源·卷四·勞傷解·精神》에 “培養中氣하야 降脾胃以助金水之收藏하고 升肝脾以益木火之生長하면 則精秘而神安矣이라.”고 하였고 然後에 神驚精遺의 輕重을 살펴서 升脾하거나 降胃하야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精遺症이 나타난 것은 脾陷이 爲主가 된 것이니 마땅히 升脾를 重要視하고 神驚症이 나타난 것은 胃逆이 比較的 甚한 것이니 마땅히 治法은 降胃에 置重해야함을 나타낸 것이다¹²⁴⁾.

또한 《四聖心源·中氣》篇의 黃芽湯은 冊中 많은 處方의 先祖格이니 앞아서 가운데 임금을 鎮壓하고 四方을 運用하고 아울러 말하기를 “中氣之治는 崇陽補火則宜 參姜하고 培土泄水則宜 甘茯苓나라.”고 하였으며 또한 上熱者는 黃連, 白芍을 加하고 下寒者는 附子, 川椒를 加하고 肝鬱에는 桂枝, 丹皮를 加하고 肺滯에는 陳皮, 杏仁을 加하라고 하였다. 甘草, 桂枝, 白芍, 茯苓, 乾姜, 半夏, 陳皮 等の 藥物은 處方에 있어서 使用함이 比較的 많았는데 特히 甘草, 桂枝, 茯苓 等 3味의 藥物은 80%정도의 處方에 모두 使用하였다. 黃은 甘草에 對하여 《長沙藥解·甘草》에 “交媾精神之妙藥이오 調濟氣血之靈丹이라.”로 認識하였다. 《長沙藥解·桂枝》에서 桂枝에 對해 “潤肝養血之藥으로 一得桂枝면 化陰滯而爲陽和하고 滋培生氣하며 暢遂榮華하니 非群藥所能及也니라.”고 하였다. 茯苓에 對하여서는 《長沙藥解·茯苓》에 “功標百病하고 效著千方하니 …… 泄水燥土하고 沖和淡蕩하니 百病皆宜로 至爲良藥이니 道家稱其有延年之功은 信非過也니라.”고 하였다¹²⁵⁾.

以上을 살펴보면 곧 黃은 可히 “恒中見變이오 變中守恒이라.”고 할 수 있으니 대개 執中培土를 本治하는 治療大法으로 하여 始終一貫 中氣를 變理하였으니¹²⁶⁾ 이는 脾陽의 升運을 貴하게 여기고 中氣가 流通함을 貴히 여겨 대개 升運하고 流動的이고 生長的이고 光明한 것들은 모두 陽에 屬하는 것으로 보아 用藥함에 溫熱峻補를 主張하지 않고 溫通疏豁의 藥物을 主張하며 泄水補火, 扶陽抑陰, 燥濕運土의 處方原則이 있음을¹²⁷⁾ 알 수 있다.

② 六氣論에 對한 論述

《傷寒懸解·卷首·六氣司命》에서 “人有十二經인댄 仲景‘傷寒’은 但立六經者니 從六氣也라.”¹²⁸⁾고 하고 一經에는 그 一經의 性情이 있다고 하면서 《傷寒說意·

124) 遲炳周, 上揭書, p.7.

125) 趙文學, 上揭書, p.41.

126) 遲炳周, 上揭書, p.7.

127) 趙文學, 上揭書, p.41.

128) 黃元御撰, 上揭書(中卷), p.21.

卷首·六氣解》에서 “仲景爲六經寫眞하니 知六氣也라. 知六氣之變化하면 則知六經之性情也하니라.”¹²⁹⁾고 하며 仲景傷寒의 六經은 곧 六氣라고 하였다. 黃은 六氣에 對하여 《素靈微蘊·卷一·經脈解》에 “手足之經에 陰陽各三이니 是謂六氣니라.”¹³⁰⁾고 하여 六氣를 手足經脈의 三陰三陽이라고 하였다.

黃은 《四聖心源·卷二·六氣解·六氣從化》에서 “天有六氣하고 地有五行인댄 六氣者는 風 熱 暑 濕 燥 寒이오 五行者는 木 火 土 金 水라. 在天成象하고 在地成形하니 六氣는 乃五行之魂이오 五行은 卽六氣之魂이라. 人爲天地之中氣로 秉天氣而生六府하고 秉地氣而生五臟라. 六氣五行은 皆備於人身니라.”¹³¹⁾고 하여 六氣는 곧 天氣로 六府를 主管하고 五行의 魄이 되며 人身에 있다고 하였다. 人體에 있는 六氣는 곧 手足六經이니 “天人同氣也인댄 經有十二는 六氣統焉이라.”¹³²⁾고 하였다.

六氣의 變化에 對해서는 《四聖心源·卷二·六氣解·六氣從化》에서 “足厥陰以風木主令인댄 手厥陰火也는 從母化氣而爲風이니라. 手少陽以相火主令인댄 足少陽木也은 從子化氣而爲暑니라. 手少陰以君火主令인댄 足少陰水也는 從妻化氣而爲熱이니라. 足太陽以寒水主令인댄 手太陽火也는 從夫化氣而爲寒이라. 足太陰以濕土主令인댄 手太陰金也는 從母化氣而爲濕이니라. 手陽明以燥金主令인댄 足陽明土也는 從子化氣而爲燥니라.”¹³³⁾라고 하여 手足經脈의 三陰三陽을 臟府와 더불어 五行關係로서 六氣를 說明한 것이요, 이것에 對하여 《傷寒懸解·卷首·六氣司令》에서는 “六經之常也라.”¹³⁴⁾고 하였으니 이는 곧 六氣의 正常的 變化라는 것이다.

《四聖心源·卷二·六氣解·本氣衰旺》에 “經有十二인댄 司化者六經이오 從化者六經이라. 從化者不司氣化하니 總以司化者爲主하니 故十二經統於六氣라.”¹³⁵⁾고 하여 司化六經과 從化六經가 있음을 말하였다. 《傷寒懸解·卷首·六氣司令》에서는 “足太陽膀胱以寒水主令하고 手太陽小腸之火從而化寒하며 手陽明大腸以燥金主令하고 足陽明胃之土從而化燥하며 手少陽三焦以相火主令하고 足少陽膽之木從而化火하며 足太陰脾以濕土主令하고 手太陰肺之金從而化濕하며 手少陰心以君火主令하고 足少陰腎之水從而化火하며 足厥陰肝以風木主令하고 手厥陰心包之火從而化風이라.”¹³⁶⁾고 하고 또 “少陰 少陽 陽明은 手經司氣오 而足經從化者也하며 厥陰

129) 黃元御撰, 上揭書(中卷), p.543.

130)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269.

131)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37.

132)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37.

133)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37.

134) 黃元御撰, 上揭書(中卷), p.21.

135)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39.

136) 黃元御撰, 上揭書(中卷), p.21.

太陰 太陽은 足經司氣오 而手經從化者也라.”¹³⁷⁾고 하였으니 곧 司化六經은 足太陽膀胱經 手陽明大腸經 手少陽三焦經 足太陰脾經 手少陰心經 足厥陰肝經이오, 從化六經은 手太陽小腸經 足陽明胃經 足少陽膽經 手太陰肺經 足少陰腎經 手厥陰心包經이라 하였으며 從化하는 것은 氣化를 管掌하지 못하고 모두 司化하는 것으로써 主管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六氣變化的 機氣에 對하여 《四聖心源·卷二·六氣解·六氣從化》에서 “蓋癸水上升하여 而化丁火하니 故手少陰以君火司氣하고 而足少陰癸水在從化之例라. 丙火下降하여 而化壬水하니 故足太陽以寒水當權하고 而手太陽丙火在奉令之條라. 木之化火也인댄 木氣方盛하면 而火氣初萌하니 母強子弱하니 故手厥陰以相火而化氣於風木하니라. 火氣既旺하면 而木氣已虛하니 子壯母衰하니 故足少陽以甲木而化氣於相火니라. 土之化金也인댄 土氣方盛하면 而金氣初萌하니 母強子弱하니 故手太陰以辛金而化氣於濕土니라. 金氣方旺하면 而土氣已虛하니 子壯母衰하니 故足陽明以戊土而化氣於燥金하니라. 母氣用事하고 子弱未能司權하면 則子從母化하며 子氣用事하면 母虛不能當令하면 則母從子化하니 所謂將來者進하고 成功者退는 自然之理也니라.”¹³⁸⁾라고 하였다.

六氣의 病理에 對한 黃의 觀點은 《四聖心源·卷二·六氣解·六氣偏見》에서 볼 수 있으니 곧 “人之六氣는 不病則不見하고 凡一經病則一經之氣見이니라. 平人六氣調和하면 無風 無火 無濕 無燥 無熱 無寒하니 故一氣不至獨見이니라. 病則或風或火 或濕 或寒 或熱하여 六氣不相交濟하니 是以一氣獨見이니라. 如厥陰病則風盛하고 少陰病則熱盛하며 少陽病則暑盛하고 太陰病則濕盛하며 陽明病則燥盛하고 太陽病則寒盛也니라.”¹³⁹⁾라고 하여 病이 發生되면 一經의 六氣가 홀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病理는 《四聖心源·卷二·六氣解·本氣衰旺》에 “病則或見司化者之本氣하고 或見從化者之本氣하며 或司化者而見從化之氣하고 或從化者而見司化之氣하니 全視乎本氣之衰旺焉이니라.”¹⁴⁰⁾고 하여 司化와 從化의 本氣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서로 錯亂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 “……. 而足少陰之病寒은 是從化者自見其本氣니 以水性原寒이오 手少陰之病寒은 是司化者而見從化之氣니 以君火原從水化也라. …… 而手太陽之病熱은 是從化者自見其本氣니 以火性原熱이오 足太陽之病熱은 是司化者而見從化之氣니 以寒水原從火化也라. …… 而手厥陰之病暑와 足少陽之病風은 是從化者自見其本氣니 以火性生暑而木性生風也라. …… 而手太陰之病燥와 足陽明之病濕은 是從化者自見其本氣니 以金性

137) 黃元御撰, 上揭書(中卷), p.21.

138)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p.37-38.

139)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38.

140)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39.

本燥而土性本濕也라.”¹⁴¹⁾고 하였다. 이러한 病理的인 狀況의 原因에 對하여서는 《四聖心源·卷二·六氣解·六氣偏見》에 “究之一氣之偏盛하니 亦緣於虛하니라.”¹⁴²⁾고 하여 六氣의 病理的 狀況의 到來는 虛라고 하였다. 《四聖心源·卷二·六氣解·六氣偏見》에서 “以此氣之偏盛은 定緣彼氣之偏虛니라. 如厥陰風盛者는 土金之虛也라. 少陰熱盛과 少陽暑盛者는 金水之虛也라. 太陰濕盛者는 水木之虛也라. 陽明燥盛者는 木火之虛也라. 太陽寒盛者는 火土之虛也라. 以六氣之性은 實則剋其所勝而侮所不勝하며 虛則己所不勝者乘之하고 而已所能勝者亦來侮之也니라.”¹⁴³⁾고 하였다. 또 《傷寒說意·卷首·六氣司令》에 “病則太陽是寒하고 陽明是燥하며 少陽是火하고 太陰是濕하며 厥陰是風이나 而惟少陰則不從熱化而從寒化라. 以火勝則熱水勝則寒한데 病則水能勝火而火不勝水 故從壬水而化寒하고 不從丁火而化熱也라.”¹⁴⁴⁾라고 하였다. 六氣病理에 對하여 概括的으로 《四聖心源·卷二·六氣解·本氣衰旺》에서 “大抵足太陽雖以寒化하나 而最易病熱이라. 手少陰雖以熱化하나 而最易病寒이라. 厥陰原以風化하니 而風盛者固多라. 少陽雖以火化하나 而火敗者非少라. 金性本燥나 而手太陰從土化濕者는 常有七八이라. 土性本濕이나 而足陽明從金化燥者 未必二三也라.”¹⁴⁵⁾고 하였다. 이러한 것은 모두 土濕으로 因한다고 하여 《四聖心源·卷二·六氣解·本氣衰旺》에서 “足太陰脾以濕土하고 足陽明胃從燥金化氣하며 濕爲本氣而燥爲化氣하니 是以燥氣不敵濕氣之旺이라. 陰易盛而陽易衰하니 土燥病者는 除陽明傷寒承氣證外不多見이니 一切內外感傷雜病은 盡緣土濕이라.”¹⁴⁶⁾고 하였다.

六氣의 治法에 對하여 《四聖心源·卷二·六氣解·六氣治法》에서 “治厥陰風木法은 桂枝苓膠湯이니 甘草, 桂枝, 白芍, 茯苓, 當歸, 阿膠, 生薑, 大棗이라. 上熱엔 加黃芩이오 下寒엔 加乾薑, 附子라. 治少陰君火法은 黃連丹皮湯이니 黃連, 白芍, 生地, 丹皮라. 少陰病은 水勝火負하니 最易生寒이라. 若有下寒하면 當用椒, 附라. 治少陽相火法은 柴胡芍藥湯이니 柴胡, 黃芩, 甘草, 半夏, 人參, 生薑, 大棗, 白芍이라. 治太陰濕土法은 朮甘苓澤湯이니 甘草, 茯苓, 白朮, 澤瀉이라. 治陽明燥金法은 百合五味湯이니 百合, 石膏, 麥冬, 五味이라. 治太陽寒水法은 苓甘薑附湯이니 甘草, 茯

141)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39.

142)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38.

143)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38.

144) 黃元御撰, 上揭書(中卷), p.21.

145) 黃元御撰, 上揭書, p.39.

146)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38.

苓, 乾薑, 附子라. 太陽病은 最易化生濕熱하야 以化氣於丙火하니 而受制於濕土也라. 若有濕熱이면 當用梔, 膏之類라.”¹⁴⁷⁾라고 하였다.

以上을 살펴보면 黃은 六氣에 對하여 《四聖心源·卷二·六氣解·六氣治法》에서 “仲景《傷寒》에 以六經立法은 從六氣也라. 六氣之性情形狀은 明白昭揭 醫必知此 而後知六經之證. 六經之變化雖多 總不外乎六氣 此義魏晉而後 絕無解者. 先聖之法 一線莫傳 凌夷至於今日 不堪問矣.”¹⁴⁸⁾이라 하여 傷寒의 六經의 變化는 六氣로서 觀察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그의 六氣에 對한 論法은 五行의 相生相剋의 關係로서 說明하면서도 脾胃濕土의 中氣를 대단히 重視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Ⅲ. 結 論

清代의 醫學은 考證學이 勃興하여 往聖의 心法을 探究하고자 하는 傾向이 있어 많은 醫家가 여기에 影響을 받았다. 特히 黃元御는 東洋醫學의 經典이라고 불리우는 《素問》, 《靈樞》, 《難經》, 《傷寒雜病論》을 研究하여 經旨를 心得함으로써 이를 自身の 獨特한 見解로 나타내었으니 그에 對한 生涯와 醫學學術思想을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黃元御의 이름은 玉路요, 字는 元御, 다른 字는 坤載요, 號는 研農, 別號는 玉楸子로 山東省 昌邑縣 黃家辛郭人으로 清代 康熙44年 乙酉年(西紀 1705年) 9月 에 出生하여 乾隆23年 戊寅年(西紀 1758年) 9月 에 죽었으니 享年 53歲이다.

2. 黃元御의 著書로는 醫書11卷, 《周易懸象》1部, 《道德經懸解》1部를 著述하였는데 醫書에는 註釋書로 《素問懸解》, 《靈樞懸解》, 《難經懸解》, 《傷寒懸解》, 《金匱懸解》가 있고 自身の 見解를 나타낸 書籍으로는 《四聖心源》, 《四聖懸樞》, 《長沙藥解》, 《傷寒說意》, 《素靈微蘊》, 《玉楸藥解》이 있다.

3. 黃元御는 黃帝, 岐伯, 越人, 張仲景을 ‘四聖’이라 하고 四聖의 著書인 《素問》, 《靈樞》, 《難經》, 《傷寒雜病論》을 研究하여 中氣를 重視하였고 傷寒을 六氣로서 觀察하여야 한다고 提示하였다.

4. 黃元御의 中氣에 關한 研究는 中氣를 陰陽升降의 軸이라 하여 土라 하고 土에는 脾土와 胃土가 있어 脾土는 上升하고 胃土는 下降을 主하여 五臟六腑의 機氣를 主管한다고 하여서 人體의 生理와 病理 모두를 脾升胃降의 作用으로 보았다.

147)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p.44-45.

148) 黃元御撰, 上揭書(下卷), p.44.

5. 黃元御는 中氣를 重視하여서 곧 脾陽의 升運과 中氣의 流通을 重히 하여 用藥하는데 있어서 溫熱峻補를 主張하지 않고 溫通疏豁의 藥物을 使用하여야 한다고 하여 泄水補火, 扶陽抑陰, 燥濕運土의 處方原則을 提示하였다.

6. 黃元御는 傷寒六經을 六氣로 보았으니 六經을 司化六經과 從化六經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六氣의 變化하는 性情으로써 傷寒뿐만 아니라 內傷雜病의 生理와 病理를 說明하였는데 그의 六氣 氣化理論은 傷寒研究에 있어서 또 하나의 다른 方法을 提示하였다.

이와 같이 黃元御의 醫學學術思想은 《素問》 《靈樞》 《難經》 《傷寒雜病論》을 中心으로 研究하여 이로부터 中氣의 脾胃升降의 機氣를 重視하고 中氣升降을 基礎로서 六氣論을 提示하였으니 天人合一思想을 바탕으로 한 그의 醫學學術思想에 對하여 좀더 研究할 價値가 있다고 思料된다.

參 考 文 獻

1. 洪元植編著：中國醫學史，서울，東洋醫學研究所，1984.
2. 王琦 等編著：素問今釋，貴州，貴州人民出版社，1981.
3. 梁運通主編：黃帝內經類析，呼和浩特市，內蒙古人民出版社，1986.
4. 南京中醫學院：難經校釋，上海，人民衛生出版社，1978.
5. 中國中醫學院：三十年論文集，北京，中醫古籍出版社，1986.
6. 裘沛然主編：中醫歷代各家學說，上海，上海科學出版社，1984.
7. 甄志亞主編：中國醫學史，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1.
8. 黃元御撰：黃元御醫書十一種(上·中·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0.
9. 李雲主編：中醫人名辭典，北京，國際文化出版公司，1988.
10. 李經緯主編：中國人物辭典，上海，上海辭書出版社，1988.
11. 趙爾巽 等撰：清史稿(四十六冊)，北京，中華書局，1991.
12. 丹波元胤編：中國醫籍考，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
13. 呂紹綱編：周易辭典，長春市，吉林大學出版社，1993.
14. 李相殷監修：漢韓大字典，서울，民衆書館編輯局，1994.
1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中文大辭典，中華學術院，1985.
16. 廣東·廣西·湖南·河南辭源修訂組商務印書館偏執部編：辭源，홍콩，商務印書館香港分館，1987.
17. 呂光榮主編：中國氣功辭典，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9.

18. 成百曉譯註：懸吐完譚孟子集註,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19. 劉桂榮：黃元御“中氣升降”淺探, 山東中醫學院學報, 1990年 第1期.
20. 趙文學：論黃元御升運脾陽的醫學思想, 上海中醫藥雜誌, 1990年 第4期.
21. 朱邦賢：崇陽黜陰的《素靈微蘊》, 上海中醫藥雜誌, 1985年 第4期.
22. 遲炳周：論黃元御執中治本的論治特色, 山東中醫雜誌, 1992年 第1期.